

인
문
의
숲
을
거
닐
다

출판도시 인문학당 책모음책

주최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발행일 2017년 12월 18일

발행인 김언호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기획 김선미

편집 안희진

디자인 스튜디오 바프

출판도시문화재단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전화 031-955-0050

팩스 031-955-0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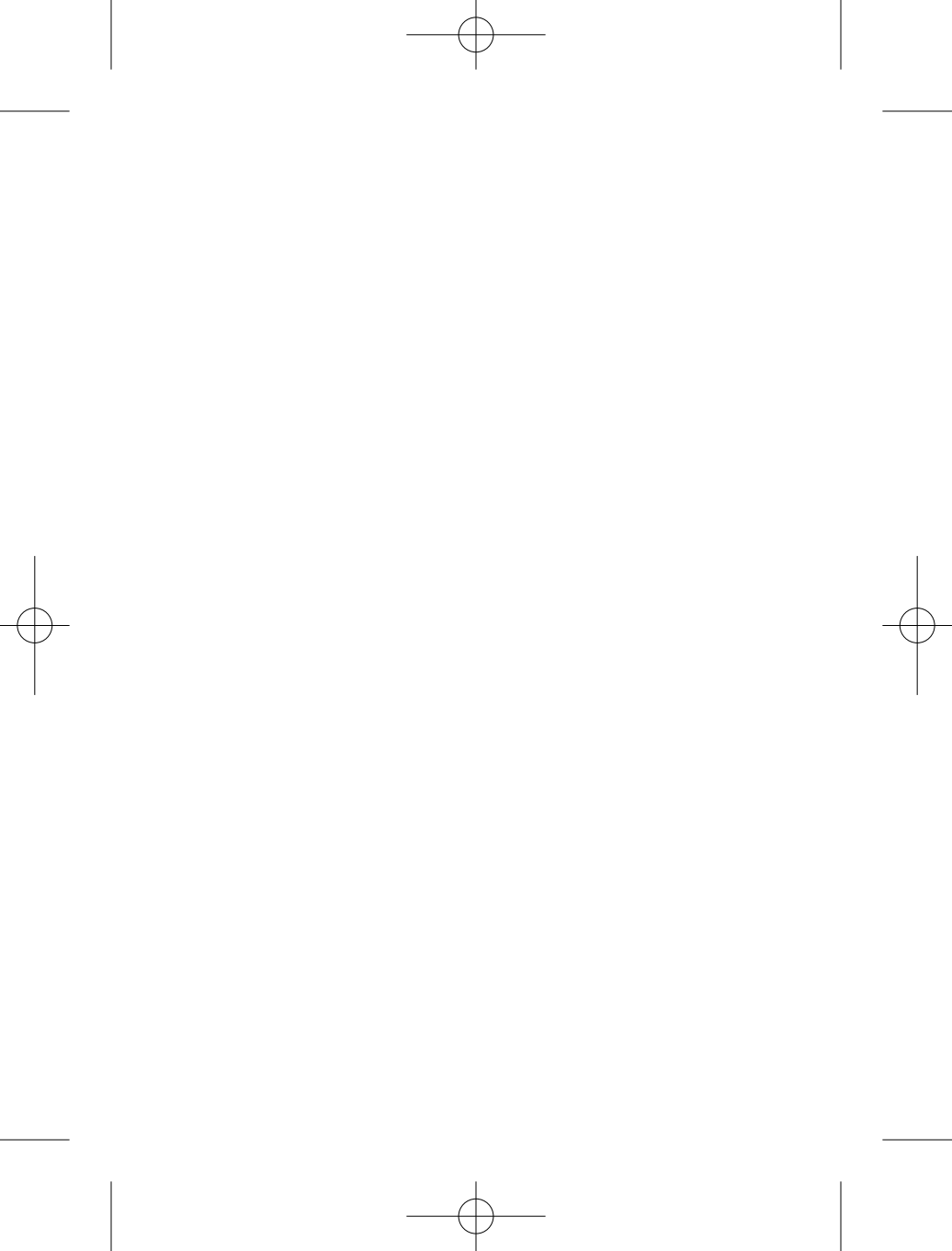
www.pajubookcity.org

출판도시 인문학당 웹사이트

www.inmunclub.org

이 자료집은 ‘출판도시 인문학당’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여기 실린 콘텐츠의 무단 도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 책모음책



차례

6	여는 글
10	봄. 春. 강연자 추천도서
98	여름. 夏. 강연자 추천도서
142	가을. 秋. 강연자 추천도서
190	그리고 책. 冊. 출판사, 책방, 문화단체 추천도서
266	2017 출판도시 인문학당 강연 모아보기
286	재단소개, 오시는 길

여 리 글

- 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인문학의 문턱을 낮춰 대중들의 지적 목마름을 해소하고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생활 밀착형 인문학 강연을 추구해 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작가들과 대중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 온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인문학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2014년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한 이래로 4년간 780여 회의 강연을 개최하며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다양한 기획을 시도했습니다.

2017년에는 출판도시와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7
포항, 군산 등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 중소 출판사와
책방을 지원하는 ‘우수 강연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17년 한 해 동안 진행된 220여 회의 강연을 되짚
어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강연
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강연자와 출판사 및 작은책방,
문화단체의 담당자들이 추천한 책을 모았습니다. 강연과 관련
된 책부터 출판사의 대표 도서, 저자가 인생의 책으로 꼽은 책
까지 다양한 목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추천된 책을 차례로 읽으며 강연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현장의 생생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봄.春.

03~05월



강연자 추천도서

한나 아렌트 특강

김선옥, 이진우, 홍원표, 김비환 교수 4인의 안내로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알아봤다. 악의 평범성, 홀로코스트,
인간의 조건, 진정한 혁명의 의미, 현대 정치사상에 대한
영향 등 여러 주제를 아울러 살폈다.

12 한나 아렌트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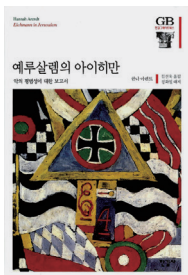
I 중복추천 147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저. 한나 아렌트 / 역. 김선옥
한길사

현대인이 범할 수 있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 역작.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자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길을 고민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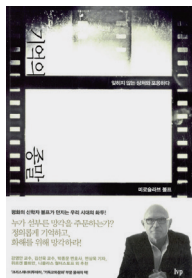
김선옥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기억의 종말

저. 미로슬라브 볼프 / 역. 홍종락
IVP

저자가 군 복무 시절 겪은 혹독한
심문과 감시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자신에게 가해진 이를 어떻게 용서
하고 화해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한
저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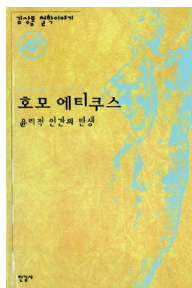


봄. 春. 03.23 13

호모 에티쿠스

저. 김상봉
한길사

소크라테스에서 칸트까지,
윤리사상의 핵심을 명료한 언어로
짚어내는 통찰력이 돋보인다.
우리말로 쓴 철학 명저다.



실존철학

저. 조가경
박영사

실존철학의 핵심을 안내하는 저술로
그 수준이 세계적이다. 시간을 들여
읽을 가치가 있는 탁월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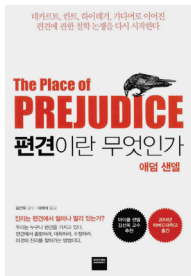


14 한나 아렌트 특강

편견이란 무엇인가

저. 애덤 아다토 샌델 / 역. 이재석
와이즈베리

보수주의의 이론적·철학적 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저술로 저자의
부친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론적
배경도 탐색할 수 있다.



문명화과정 (전 2권)

저. 노베르트 엘리아스 / 역. 박미애
한길사

개인의 미시적 행동양식과 사회의
거시적 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문명화를 이루었는지 분석한 책.
우리도 문명화 과정의 한 단계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김비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봄. 春. 03.23 15

정치의 생각

저. 애덤 스미프트 / 역. 김비환
개마고원

‘우리 국민’이 정치적 주권자로 부상한
현시점에서 읽어볼 만한 책. 유능하고
덕스러운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정치
철학적 기본 지식을 잘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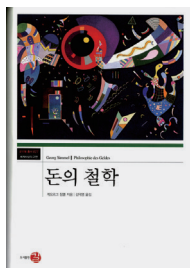


김비환

돈의 철학

저. 게오르크 짐멜 / 역. 김덕영
도서출판 길

돈의 출현과 유통이 초래한 심대한
변화를 사회학적·문화심리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한
책. 돈의 의미에 관한 가장 심오한
분석을 담았다.



디자인과 영화- 그냥 좋은 장면은 없다

아트라이터 신연우와 함께 영화의 장면과 디자인의 장면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통하는 언어라는 것을
알아봤다. 영화 <레옹>을 소재로 '깊이'를,
<잉글리쉬 페이션트>를 통해 '색상'을, <그랑 블루>를 보며
'방향'을 살폈다.

디자인과 영화-그냥 좋은 장면은 없다

봄. 春. 03.2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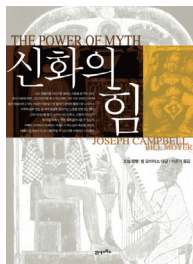
9

신화의 힘

신연우
아트라이터

저. 조지프 캠벨, 빌 모이어스 / 역. 이윤기
21세기북스

신화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대담
형식의 책. 신화에 숨겨진 상징을 통해
인간 내면의 본질과 삶의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간과 상징

저. 카를 구스타프 융 / 역. 이윤기
열린책들

융이 일반 대중에게 그의 이론을 쉽게 전하는 목적으로 쓰인 책.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고대 신화, 개성화 과정, 예술과 꿈 등 융이 평생 연구해 온 각 분야에 대해 제자들과 함께 엮은 책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 빅토르 E. 프랑클 / 역. 이시형
청아출판사

로고테라피를 주창한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쓴 책. 극한의 상황을 겪으며 관찰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제시한다.



세상의 모든 쓰영과 함께- 소설 『쓰영』으로 보는 다문화 사회와 이방인

소설 『쓰영』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현실, 모두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다문화시대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와 그 속에 존재하는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세상의 모든 쓰영과 함께

봄. 春. 03.3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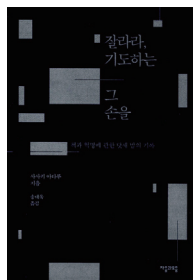
12 중독추천 188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저. 사사키 아타루 / 역. 송태욱
자음과모음

읽기와 쓰기를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작가의 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책. 책과 혁명에 관한 다섯 밤의 기록이다.

서성란
소설가



13

서성란

집에 가자

저. 김해자

삶창(삶이보이는창)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슬픔이 차오른 순간 한 편 한 편의
시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20 세상의 모든 쓰영과 함께

봄. 춘. 03.31

14

서성란

풍년식당 레시피

저. 서성란

이리

다운증후군 모녀의 식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나는 왜 너와
다른 것인가, 질문하는 딸과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엄마 그리고 그들을
품는 할머니.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사진은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소통의 효과적인 도구이다.
쉽고 친숙한 매체인 사진을 통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와 타자 간의 소통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임을 이해했다.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봄. 春. 04.0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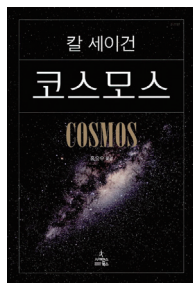
15

코스모스

저. 칼 세이건 / 역. 홍승수
사이언스북스

칼 세이건이 안내하는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신비.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신화 등 그의 넓은 지성의 스펙트럼을
만나볼 수 있다.

박종덕
시각예술단체 gimmicks 대표



16

윤미네 집

저. 전몽각

포토넷

윤미의 탄생과 성장, 시집가던 날까지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으로 순간을 기록했다. 평범한 가족의 시간을 담은 기록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박종덕



22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17

박정희 할머니의 행복한 육아일기

저. 박정희

걷는책

할머니가 그림과 사진으로 기록한 다섯 남매의 육아일기. 요즘은 보기 힘든 대가족의 이야기. 일상적이지만 특별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박종덕



사랑의 방

저. 베르나르 포콩 / 역. 심민화
마음산책

사진작가 베르나르 포콩의 사진집이자
시집. 기록하는 사진에서 만들어내는
사진으로 생각을 전환한다. 텅 빈 방을
그만의 상상력과 감성으로 채워놓는
사랑스러운 책.



봄. 春. 04.01 23

프로불편러 대담: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불편함은 없다

제대로 부수고 제대로 치이며, 세상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편러’들의 이유 있는 외침! 웹매거진
『아이즈』 취재팀장 위근우와 『월간 잉여』편집장 최서운의
흥미진진한 대담을 들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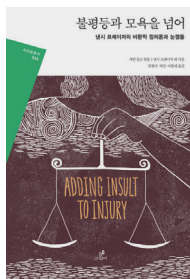
24 프로불편러 대담: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불편함은 없다

19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저. 낸시 프레이저 외 / 역. 이현재 외
그린비

페미니즘 철학자이자 비판 이론가인
낸시 프레이저가 당대의 이론가들과
논쟁하며 경제적 불평등과
인정 투쟁의 정치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간다.

위근우
웹매거진 <아이즈> 취재팀장



20

위근우

혼자를 기르는 법

저. 김정연

창비

동시대 서울이라는 시공간에서
20대 여성이 젠더적, 세대적으로 겪는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책.



봄. 춘. 04.05 2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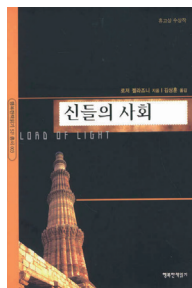
위근우

신들의 사회

저. 로저 젤라즈니 / 역. 김상훈

행복한책읽기

우주를 배경으로 힌두 신화와 과학
문명을 날줄과 씨줄로 엮어 풀어낸
이 SF를 보고 있으면, 이야기의
힘이라는 것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드링크, 그 치명적 유혹

저. 캐럴라인 넵 / 역. 고정아
나무처럼

재능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저자가 일체의
자기연민을 지우며 써나간
이 자전적 기록은 중독의 본질을
꺾는 탁월한 리포트이자
우아한 에세이다.



26 프로불편러 대담: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불편함은 없다

봄. 춘. 04.05

인문학으로 ‘나’를 세우다- 인문학을 통해 꿈꾸는 ‘새로운 삶’

유행처럼 너도나도 인문학을 말하는 시대.
그런데 삶에서 왜 인문학이 필요한 걸까?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삶’을 위해 인문학이 꼭 필요한 이유를
김경집 선생에게 들어봤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실천적인 참지식’으로서의
인문학을 만났다.

인문학으로 ‘나’를 세우다-인문학을 통해 꿈꾸는 ‘새로운 삶’ 봄. 춘. 04.05 27

23
인포메이션

김경집
인문학자

저. 제임스 글릭 / 역. 박래선 외
동아시아

최고의 과학저술가가 빚어낸
과학정보도시의 정수. 정보, 통신,
지식에서부터 심리, 철학, 진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살아있는 보물창고.



나는 부엌에서 과학의 모든 것을 배웠다

저. 이강민
더숲

딱딱하고 어렵다고 여기는 과학을
생활 속에서 재미있고 맛나게
이해하도록 이끄는 매력적인 책.
요리를 통해 과학을 만나게 하는
멋진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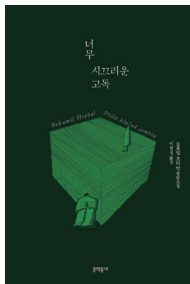


28 인문학으로 '나'를 세우다-인문학을 통해 꿈꾸는 '새로운 삶'

너무 시끄러운 고독

저. 보후밀 흐라발 / 역. 이창실
문학동네

체코의 국민작가 보후밀 흐라발의
결작 소설. 치밀한 패러독스와
메타포를 통해 실존적 해방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체코 문학의 풍미를 만날 수 있다.



요리 본능

저. 리처드 랭엄 / 역. 조현옥
사이언스북스

불의 발견이 인류문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진화의 측면에서
바라본 매력적인 이야기. 인류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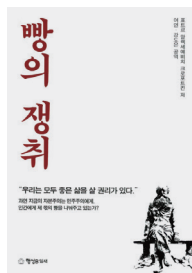


봄. 춘. 04.05 29

빵의 쟁취

저. 포트리 A. 크로포트킨 / 역. 강도는 외
행성B

좋은 삶을 살 권리에 대한 한 혁명가의
대담하고 경청할 가치가 충분한 담론.
단순히 일할 권리를 넘어서 모두가
좋은 삶을 살 권리를 성찰한다.



마녀사냥의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

도적 떼에게 아버지를 잃고 주술의 세계에 빠지는 마농,
죽음의 위기에 빠진 조선 청년을 구하는 아야코,
집단 따돌림으로 친구를 잃은 서경 등 시공을 달리하는
여섯 가지 이야기를 통해 마녀사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30 마녀사냥의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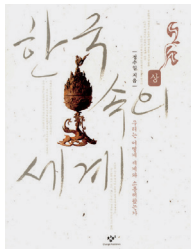
28

한국 속의 세계(전 2권)

이경덕
문화인류학 박사

저. 정수일
창비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문화도 단독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 책은 교류와 소통을 통해 우리
문화의 형성과정을 잘 보여준다.



학살, 그 이후

저. 권현익 / 역. 유강은
아카이브

인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기어츠 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베트남전쟁 이후 파괴된 삶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전쟁의 폭력과
기억 등을 다룬다.



Archive

봄. 春. 04.06 31

한국종교문화론

저. 조흥윤
동문선

한국문화의 토대에 대해 탐색한 책.
문화 속에 내재된 원리를 성찰하고,
그를 통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깊이 있는 시선을 보여준다.



이슬람 최고의 전문가 이희수 교수가 들려주는 이슬람 이야기 <이슬람 학교>

전 세계 57개에 달하는 국가와 16억 명의 인구가 믿는 종교 이슬람. 이슬람 세계는 지구촌 4분의 1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편견과 오해로 점철되고, 테러와 전쟁 등 갈등의 진원지로 각인된 이슬람 문화의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봤다.

32 이슬람 최고의 전문가 이희수 교수가 들려주는 이슬람 이야기

31

지도로 보는 세계

저. 파스칼 보니파스, 위베르 베드린 /
역. 강현주
청아출판사

현대 세계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본 책. 정치, 사회, 경제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어 교양서로 제격이며
읽는 재미와 보는 재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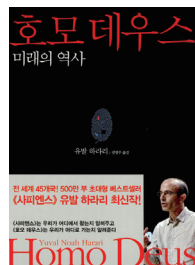
이희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호모 데우스

저. 유발 하라리 / 역. 김명주
김영사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과학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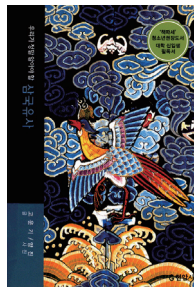


봄. 春. 04.07 33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저. 고운기
현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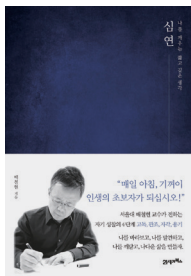
삼국유사를 읽기 쉽게 재해석했다.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채로운
사진 자료가 돋보이는 책이다.



심연

저. 배철현
21세기박스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을 통찰하고,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준다.



독립신문으로 읽는 우리문장과 인쇄술

독립신문에 나타난 민족정신과 활판인쇄술이 우리의 언론과
역사에 미친 영향을 활판인쇄의 현장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김삼웅, 김남일, 채지원, 오광수, 방현석 5인과 함께 독립신문의
창간 배경부터 인쇄기술, 순 한글 문장까지 두루 살폈다.

독립신문으로 읽는 우리문장과 인쇄술

봄. 春. 04.07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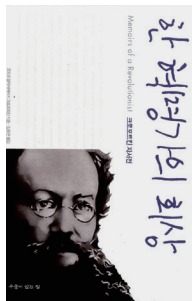
35

한 혁명가의 회상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저. 포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
역. 김유곤
우물이있는집

러시아의 혁명가이자 과학자,
사회사상가이며 지리학자인 저자는
귀족 세습권도 포기하고 사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자서전의 백미.



사회정의론

저. 존 롤스 / 역. 황경식
서광사

자유에 관한 정의와 가치를
논파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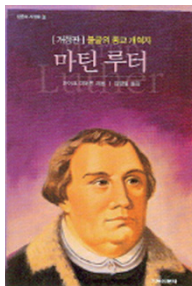


36 독립신문으로 읽는 우리문장과 인쇄술

불굴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저. 마이크 피어론 / 역. 김경열
기독신문사

저자는 이 책에서 루터를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으로 묘사한다.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려 했던 마틴 루터를
‘영웅’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면에서 다룬다. 불굴의 종교개혁자에
관한 새로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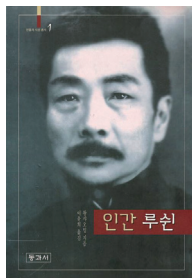
38

김삼웅

인간 루쉰

저. 왕샤오밍
동과서

자유·진보정신 영혼에 관한
생애를 담은 책.



봄. 春. 04.07 37

39

김삼웅

가람 시조집

저. 이병기
지만지

암담했던 시대, 한 문인의 정신사.
시조 시인이며 시조 부흥 운동을
주도한 시조 학자이자 국문학자였던
가람 이병기 시조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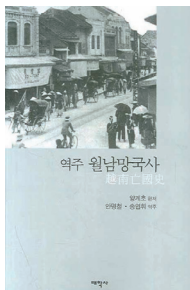


역주 월남망국사

김남일
소설가

저. 양계초 / 역. 안명철 외
태학사

베트남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과
이유, 애국지사의 투쟁에 초점을
맞춘 책. 동병상련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민족적 자각을 일깨운다는
이유로 1909년 일제의 출판법에 의해
금서(禁書)로 처분됐다.



38 독립신문으로 읽는 우리문장과 인쇄술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김남일

저. 박태균 외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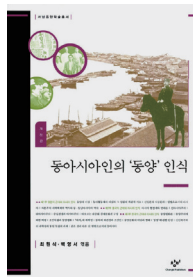
17세기 초부터 2010년까지 한중일을
중심으로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몽골 등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편협한 시각을
배제하고 넓고 총체적인 역사인식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책.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저. 최원식, 백영서
창비

동아시아 3국이 근대라는 관문을 어떻게 맞이하고 관통하는지, 특히 새롭게 대두한 ‘동양’ 혹은 ‘동아(시아)’라는 언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핀다. 당시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발언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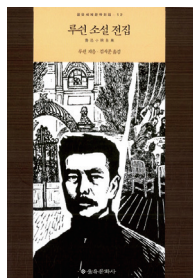


봄. 春. 04.07 39

루쉰 소설 전집

저. 루쉰 / 역. 김시준
을유문화사

루쉰이 발표한 소설들을 엮은 소설집. 『납함』, 『방황』, 『고사신편』 등 3권에 수록된 33편을 번역한 완역본이다. 중국 근현대문학의 고전 <아큐정전>, <광인일기>도 수록되어 있다.



나를 만지지 마라! (전 2권)

저. 호세 리살 / 역. 김동엽
놀민

필리핀 독립운동의 아버지
호세 리살이 쓴 장편소설로, 스페인
식민지배 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40 독립신문으로 읽는 우리문장과 인쇄술

세월

저. 방현석
도서출판 아시아

4.16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가슴에 와 닿게 그려낸 책.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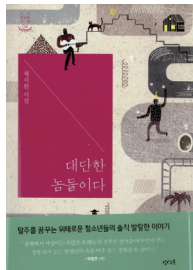
채지원

대단한 놈들이다

저. 채지원

창비교육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재미있게 풀어낸 청소년 시선.
공부 걱정은 안드로메다로
날려 버리고 제 나름대로 놀 줄 아는
녀석들을 향한 응원가이다.



봄. 春. 04.07 41

47

오광수

경향신문 기획위원

그리스인 조르바

저. 니코스 카잔차키스 / 역. 이윤기

열린책들

인생의 깊은 비밀을 담은 책.
노벨 문학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르며
그리스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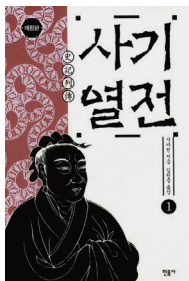
48 중복추천 126

오광수

사기열전(전 2권)

저. 사마천 / 역. 김원중
민음사

읽는 재미는 물론 역사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켜 주는 책.



42 독립신문으로 읽는 우리문장과 인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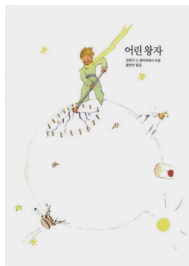
49 중복추천 179

오광수

어린왕자

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 역. 황현산
열린책들

현존하는 최고의 어른동화.



50

오광수

삼국지(전 10권)

저. 나관중 / 역. 황석영
창비

긴 인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



봄. 春. 04.07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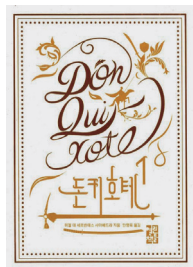
51 중북추천 82

오광수

돈키호테(전 2권)

저. 미겔 데 세르반테스 / 역. 안영옥
열린책들

삶의 유머와 지혜를 배우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한다.



전쟁의 슬픔

방현석
소설가저. 바오 닌 / 역. 하재홍
도서출판 아시아

베트남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바오 닌의 대표작.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이 어린 연인의 청춘과 사랑을 어떻게 미궁에 빠뜨렸는지 냉정하면서도 걱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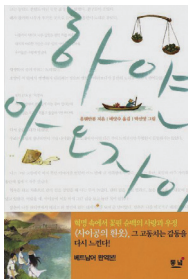
44 독립신문으로 읽는 우리문장과 인쇄술

하얀 아오자이

방현석

저. 응웬반봉 / 역. 배양수
동녘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베트남 학생운동을 생생하게 묘사한 소설이다. 식민지 조국의 현실에 눈을 뜨고 온몸으로 혁명에 뛰어든 베트남 젊은이들의 투쟁을 그린다.



적절한 균형

저. 로힌턴 미스트리 / 역. 손석주
도서출판 아시아

로힌턴 미스트리의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손꼽히는 소설로, 25개국
언어로 번역됐다. 인도 사회를
배경으로 절망 속에서 삶을 지탱해
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삶을
들려준다.



영화음악을 이야기하다

음악은 의외로 가장 쉽고 정확하게 한 사회의 지나간 시간을 보여주는 텍스트다. 어떻게 보면 음악은 당대의 소음을 미학적으로 정리한 것일지도 모른다. 칼럼니스트 성기완과 영화에 쓰인 음악을 들어보며 그 음악의 역사적, 음악적 맥락을 이해해봤다.

46 영화음악을 이야기하다

55

영화음악, 현실보다 깊은 소리

성기완
작가, 칼럼니스트

저. 성기완
한나래

강의내용이 담겨 있는 강연자의 저서.
음악이 영화를 어떻게 적절하게
만드는지 포착해 낸 책이다.



영화의 목소리

저. 미셸 시용 / 역. 박선주
동문선

소리는 영화에서 어떻게 자신의
장소를 찾아가는가. 소리 예술로서의
영화, 그 메커니즘과 역사, 미학을
파헤치며 영화에 있어서 소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



봄. 春. 04.08 47

영화음악

저. 질 무엘릭 / 역. 박지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영화음악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한 좋은 개론서.



詩에 이르는 길

시 쓰기는 세계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시 쓰기의 자세와 윤리 등을 통하여 시와 삶의 관계성에 대해
시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또, 문학이 삶을 받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성찰했다.

48 시에 이르는 길

58

예술과 연금술

저. 이지훈
창비

예술과 미학에 관한 빼어난 에세이.
바슐라르의 철학사상을 자연과 예술,
자연과 문명이 만나는 지점에서
고찰한다.

김수상
시인, 대구경북작가회의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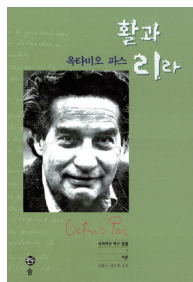


활과 리라

저. 옥타비오 파스 / 역. 김은중 외
솔출판사

20세기 후반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문학작가로 평가받는 멕시코의 시인인
옥타비오 파스의 시집.

시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기에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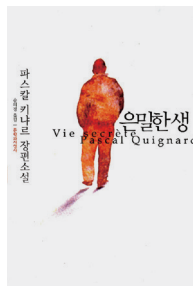


봄. 春. 04.09 49

은밀한 생

저. 파스칼 키냐르 / 역. 송의경
문학과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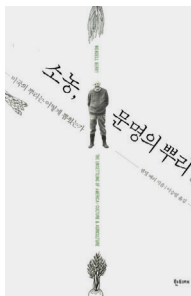
문학에 순교하는 아름다운 문장.
이 작품을 한 편의 긴 시로 읽고,
키냐르를 위대한 산문 시인이라고
평한 비평가도 있다.



소농, 문명의 뿌리

저. 웬델 베리 / 역. 이승렬
한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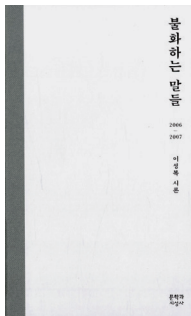
평생의 저작과 고향 땅에서의 농촌공동체 운동을 통해 ‘농적 가치’를 지키려 했던 웬델 베리의 첫 저서. 농업과 생명의 중요성을 새길 수 있다.



불화하는 말들

저. 이성복
문학과지성사

평범한 문체로 쉽게 쓴 우리나라 최고의 시론집이다. 2006년과 2007년 사이 시 창작 수업 내용을 ‘시’의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언을 포함해 총 128개의 이야기가 담겼다.



시인의 울음- 시로 읽는 중국

문학과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문제를 개괄하고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그려봤다. 중국의 명시를 읽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다.

시인의 울음-시로 읽는 중국

봄. 春. 04.13 51

63

소유냐 존재냐

저. 에리히 프롬 / 역. 차경아
까치

본능적으로 사람은 소유를 추구한다.
그것은 갈망의 소산이다.
그러나 진정한 삶이란 소유에
집착하는 생활을 넘어서 있다.
버리고 비움으로써 참된 삶을
회복할 수 있음을 제시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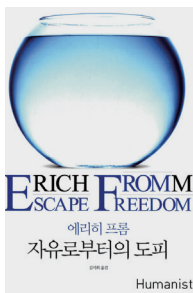
안희진
단국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자유로부터의 도피

저. 에리히 프롬 / 역. 김석희
휴머니스트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격리와 소외를 넘어선
인본주의를 강조한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책이다.



52 시인의 울음-시로 읽는 중국

사랑의 기술

저. 에리히 프롬 / 역. 권오석
홍신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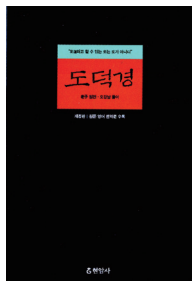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네 가지
유형을 보여주며 참된 사랑의 의미를
말한다.



도덕경

저. 노자 / 역. 오강남
현암사

중국 고전 중에서 제왕이 지켜 가야 할 자세를 가장 명확하게 설파한 노자의 글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봄. 春. 04.13 53

장자

저. 장자 / 역. 오강남
현암사

마음에 형성된 고정관념이나 세속적 가치를 벗어나 하늘과 하나 되는 경지의 장자 사상을 쉽게 설명한다.



유쾌한 인문학자에게 듣는 즐거운 장자의 사항

작은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거대한 세계로 초대하는
장자의 철학!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우화로 이루어져
이해하기 어려웠던 『장자』를 김경윤의 안내로 우리 삶에
가깝게 만났다.

54 유쾌한 인문학자에게 듣는 즐거운 장자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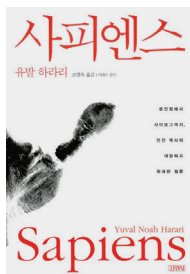
68 증복추천 127, 327

사피엔스

저. 유발 하라리 / 역. 조현욱
김영사

인간의 출현부터 사이보그의 출현까지
인류의 발전과 변화를 한 눈에 조명하는
명저.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은 과연 맞는가?
깊이 있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김경윤
자유청소년도서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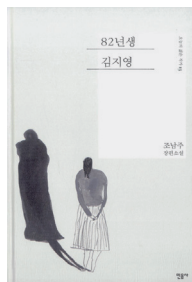


82년생 김지영

저. 조남주

민음사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는
없는가? 너무도 평범한 김지영의 삶과
현대사에서 드러난 여성의 삶이
교직 되면서 우리의 현실을 아프게
발견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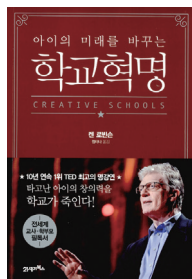
봄. 춘. 04.13 55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학교혁명

저. 켄 로빈슨 외 / 역. 정미나

21세기북스

공장형으로 생산되는 아이들은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고발하고, 능력과 재능에 맞는
교육혁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저. 강상중 / 역. 노수경
사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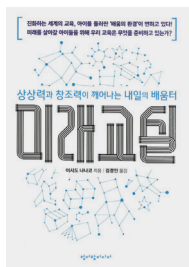
오늘날 악이 이렇게도 변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체를 알기 힘든
악의 근원을 문화 속에서 파헤치며
우리가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유한다.



미래교실

저. 이시도 나나코 / 역. 김경인
창어람미디어

창의적인 교육은 무엇이며 가능한
모델이 있는가?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미래변화에 맞는 교육형태가
세계 곳곳에서 실험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는
부러움을 불러일으킨다.



민주주의의 재발견

2016년 촛불 시위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깊어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또 가능할 때이다. 이 강연은 하나의 민주주의관을 말하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역사, 원리, 논쟁을 소개해 균형 있는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줬다.

민주주의의 재발견

봄. 春. 04.18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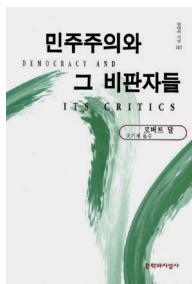
73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저. 로버트 달 / 역. 조기제
문학과지성사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적 옹호자인
저자가 민주주의의 비판자들의 논리와
논쟁하는 책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저. 존 던 / 역. 강철웅 외
후마니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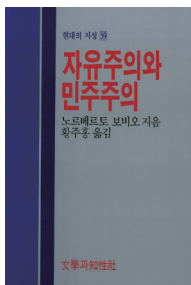
현대의 지성으로 꼽히는 철학자
존 던이, 민주주의의 수수께끼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찰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저. 노르베르트 보비오 / 역. 황주홍
문학과지성사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등하면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을
다루는 책이다.



세월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야기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

시대의 아픔 속에서 곳곳이 고통을 나누고 연대했던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를 소설가 김탁환의 시선으로 살폈다. 수원의
경기서적, 일산의 한양문고 등 지역의 서점과 함께 시대를
고민하는 작가의 말을 생생하게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월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야기

봄. 춘. 04.19 59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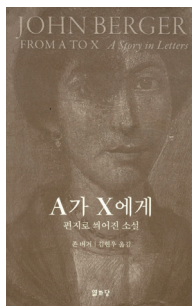
A가 X에게

김탁환

작가

저. 존 버거 / 역. 김현우
열화당

치열한 정치적 삶이 곧 치열한
사랑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소설이다.



인문학으로 ‘가족’을 세우다- 인문학을 통해 되찾은 ‘가족’ 그리고 ‘행복한 삶’의 길

‘내일의 행복’ 대신 ‘오늘 행복한 삶의 길’을 열기 위해
샛길에서 펼쳐 든 인문학 책! 이 가족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 가족의 생생한 체험담 속에서 행복의 길을 밝혀준
‘희망의 인문학’을 만났다.

인문학으로 ‘가족’을 세우다

봄. 春. 04.19 61

79

미스 럼피우스

김정은
저자

저. 바버러 쿠니 / 역. 우미경
시공주니어

한 소녀가 어른이 되면 할 일 세 가지를
할아버지와 약속한다. 소녀가 자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그린 잔잔한 성장 그림책.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존재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감기 걸린 물고기

저. 박정섭

사계절

소문을 만드는 이는 누구인가?

소문, 편 가르기, 왕따 등의
문제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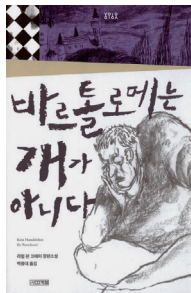
62 인문학으로 '가족'을 세우다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저. 라헬 판 코에이 / 역. 박종대

사계절

장애를 가진 소년의 장애 극복기를
통해 성장과 성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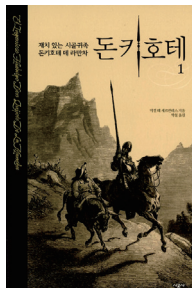
82 중복추천 51

김정은

돈키호테(전 2권)

저. 미겔 데 세르반테스 / 역. 박철
시공사

출간된 지 400년이나 지났지만,
시공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주목받는 이 소설을 통해 이상이란
무엇인지 고찰한다.



봄. 春. 04.19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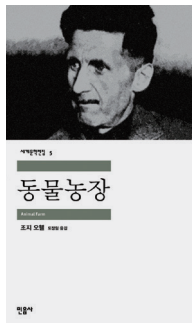
83

김정은

동물농장

저. 조지 오웰 / 역. 도정일
민음사

독재자와 전체주의 사회를 비판한
우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를
조망한다.



그린다는 것

이미지로 소통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미지란 무엇일까?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에게 ‘그린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들어봤다.

64 그린다는 것

84

정원 일의 즐거움

저. 헤르만 헤세 / 역. 두행숙
이레

헤세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그가 말하는 정원 일의 즐거움,
삶의 행복을 찾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노석미
파인 아티스트, 작가



생물과 무생물 사이

저. 후쿠오카 신이치 / 역. 김소연
은행나무

생물과 무생물이 무엇인지
한 생물학자의 견해를 쓴 책으로
명쾌하고도 친숙한 에세이처럼
잘 읽힌다.



봄. 춘. 04.20 65

티벳 사자의 서

저. 파드마삼바바 / 역. 류시화
정신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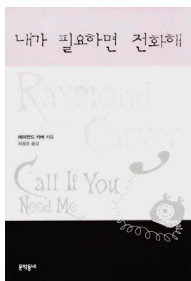
삶과 죽음에 대한 티벳인들의
진리를 담은 경전을 통해
구체적이고 신비로운 죽음에 대한
체험을 맞볼 수 있다.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

저. 레이먼드 카버 / 역. 최용준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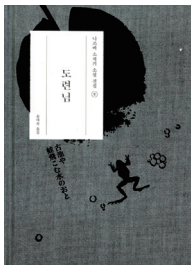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 모음책으로
어느 것 하나 재미없는 이야기가 없다.



도련님

저. 나쓰메 소세키 / 역. 송태욱
현암사

소세키의 글은 담백하고
그 특유의 감수성이 있다.
무조건 좋다.



생활 속 숨어 있는 과학을 만나는 시간 [사이언스 빌리지]

아빠와 아이가 함께 생활 속에 숨은 과학을 찾아내고,
과학적 대화를 나눌 방법을 알아본다.
김병민 과학 칼럼니스트와 함께 어렵지 않은 과학을 만난다.

생활 속 숨어 있는 과학을 만나는 시간 [사이언스 빌리지]

봄. 春. 04.22 67

89

핀치의 부리

저. 조너선 와이너 / 역. 양병찬
동아시아

필자인 조너선 와이너, 책 속 연구의
주체인 그랜트 부부, 번역해주신
양병찬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술의 힘, 연구의 힘, 번역의 힘이
어우러져 개정판으로 되살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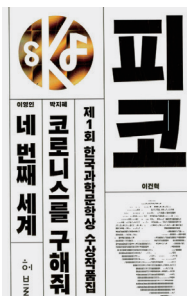
김병민
과학 칼럼니스트



제1회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작품집

저. 이견혁 외
허블

단편 SF소설 모음집으로,
한번 펼치니 멈추기가 어려웠다.
인공지능과 살아야 할 우리 미래는
지금의 두려움처럼 꽤 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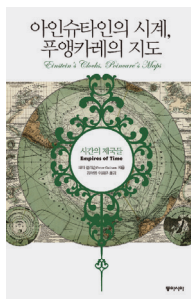


68 생활 속 숨어 있는 과학을 만나는 시간 [사이언스 빌리지]

아인슈타인의 시계, 푸앵카레의 지도

저. 피터 갤리슨 / 역. 김재영 외
동아시아

떨 수 없는 관계인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책이다. 아인슈타인과
푸앵카레, 두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동차에 '전국도로교통지도'를
들고 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평 쓰는 법

저. 이원석

유유

독서의 시작과 끝을, 손에 잡히지 않던
‘독서’라는 행위의 실체를 알아버렸다.
선을 넘어 버린 것이다. 제대로 책을
읽고 싶다면 반드시 봐야 할 책이다.



봄. 춘. 04.22 69

물고기는 알고 있다

저. 조너선 벨컴 / 역. 양병찬
에이도스

물고기는 의식 수준이 높고
도덕·사회성도 있으며 도구를
사용한다. 그런데도 ‘도덕적 관심’ 밖의
생물이었다. 도덕적 관심을,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책이다.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와 여성 인권- 제노사이드에서 살아남은 소녀 오로라 마르디가니아의 이야기

2017년 4월 24일, 아르메니아 대학살 102주기를 맞이하여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에서 살아남은 열일곱 살 소녀 오로라
마르디가니아 이야기를 담은 책 『짓밟힌 아르메니아』 번역자
이명아와 여성 인권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70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와 여성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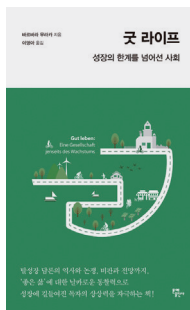
94

굿 라이프

저. 바르바라 무라카 / 역. 이명아
문예출판사

성장만이 ‘좋은 삶’에 이르는 길이라는
맹신을 파헤치고, 탈성장의 길을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모색한 책.
한 사회를 바라보는 지평을 말할 수
없이 넓혀준다.

이명아
번역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저. 마렌 고트살크 / 역. 이명아
여유당

삐삐 룡 스타킹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역동적인 삶과 문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면면과 만나는 책.
삶에 대해 깊은 위로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봄. 春. 04.24 71

날씨 이야기

저. 브리타 테쿰트럽 / 역. 이명아
북뱅크

아름다운 그림과 간명한 글을 통해
어린이 지식과학책의 틀을 완전히
벗어던진 책. 일상에 밀착된 날씨에
관해 과학적인 동시에 시적으로
접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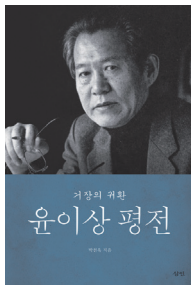


윤이상 평전

저. 박선욱

삼인

동양과 서양, 남과 북, 현대음악과
고전음악의 경계에서 고국이 당면한
시대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의 치열한 삶이
가슴 벅차게 펼쳐진다.



72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와 여성 인권

봄. 춘. 04.24

모색시리즈

지금까지의 질서가 더 통하지 않게 된 시점, 옛것은 스러지는데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색’이다.
여기서 시작된 시리즈 강연으로, 최진석 교수와 함께했다.

모색시리즈

봄. 春. 04.25 73

98

철학자와 늑대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저. 마크 롤랜즈 / 역. 강수희
추수밭

이성과 지성은 인간만의 뿌리로 간주
됐지만, 삶의 역동성과 야성을 잃게
했다. 이 책은 이론의 구조물로 남은
철학에 숨결을 불어넣어 인간이
도달하고자 했던 궁극의 지점을
각성하게 한다.



우주 덕후의 별별생각- 인간, 작은 우주

우리 인간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천문학자들이 찾아낸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먼 과거 폭발해버린 초신성이다.
천문학 무가지 『우주라이크』를 기획하고, TEDx에서 강연하는 등
과학커뮤니케이터로 활발히 활동하는 지웅배 강사에게
흥미진진한 ‘우주와 인간’ 이야기를 들었다.

74 우주 덕후의 별별생각-인간, 작은 우주

99

구름 읽는 책

저. 개빈 프레터피니 / 역. 김성훈
도요새

구름은 그저 별을 가리는 하늘의 ‘똥’
이라고만 생각했던 천문학자를 구름을
사랑하는 구름 추종자로 만들었다.

지웅배
연세대학교 전문대학원
은하진화연구센터 연구원



라플라스의 마녀

저. 히가시노 게이고 / 역. 양윤옥
현대문학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만 알 수 있다면, 다음 우주의 모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놀랍고도 거만한 과학의 양면성을 미스테리한 사건에 자연스럽게 녹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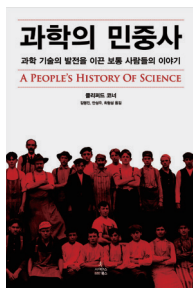


봄. 춘. 04.27 75

과학의 민중사

저. 클리퍼드 코너 / 역. 김명진 외
사이언스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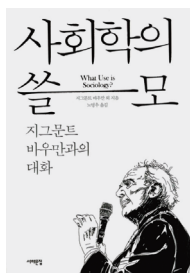
과학의 발전은 천재와 영웅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모든 역사가 그렇듯, 과학 발전의 역사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섞여 있다.



사회학의 쓸모

저. 지그문트 바우만 외 / 역. 노명우
서해문집

‘사회학이 어떻게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가 흥미롭다. 그렇다면 과학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과학의 쓸모도
생각해보게 된다.



76 우주 덕후의 별별생각-인간, 작은 우주

봄. 춘. 04.27

우리 마음속 초록 숨소리- 자연스러운 사람 되기

‘빠르게’, ‘편리하게’를 강조하는 현대 문명의 채찍질에 지친 마음을 달랠 방법은 없을까? 박두규 시인과 함께 천천히, 푸르게,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산과 자연의 푸른 가르침에 귀 기울여봤다.

우리 마음속 초록 숨소리-자연스러운 사람 되기

봄. 春. 04.29 77

103 영원의 철학

박두규
시인

저. 올더스 헉슬리 / 역. 조옥경
김영사

420여 개의 보석 같은 인용문을 통해
‘영원의 철학’을 다채롭게 소개하는
책으로, 인간에 내재한 신성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접근한다.



104

박두규

종교, 심층을 보다

저. 오강남
현암사

종교가 인간에게 어떠한 것이며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쉽고 정직하게 말한다.



78 우리 마음속 초록 숨소리-자연스러운 사람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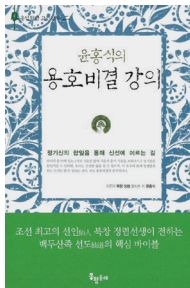
105

박두규

용호비결 강의

저. 정림 / 역. 윤홍식
봉황동래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명상의
한 형태를 잘 복원했다. 현재에도
유용한 명상법으로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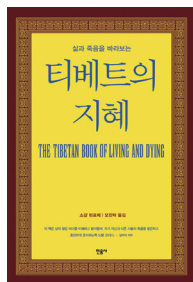
106

박두규

티베트의 지혜

저. 소갈 린포체 / 역. 오진탁
민음사

사후세계에 대한 접근이 현재적이며,
실질적인 부분을 잘 정리했다.



봄. 춘. 04.29 79

107

박두규

경성 트로이카

저. 안재성
사회평론

일제 강점기의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애와 조국에 대한
사랑이 헌신적이고 감동적이다.



메트로폴리스 파리와 서울의 숨은 이야기

메트로폴리스로 불리는 파리와 서울의 집, 카페, 서점, 공원,
백화점, 영화관을 차례로 살펴보며, 현대 도시인의 생활을
대표하는 공간의 형성 과정과 의미, 그리고 도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80 메트로폴리스 파리와 서울의 숨은 이야기

108 중북추천 167

노동의 배신

최민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저. 바버라 에런라이크 / 역. 최희봉
부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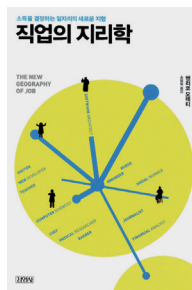
저자가 실제 청소부, 웨이트리스 등으로
일하며 최저임금과 유사한 소득으로
생활한 리포트. '빈곤층이 가난한 것은
계으르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선입견을 깬다.



직업의 지리학

저. 엔리코 모레티 / 역. 송철복
김영사

같은 직업을 지닌 사람의 소득이 거주하는 도시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미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거시적 주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흥미롭게 조명하는 게 특징이다.



봄. 춘. 04.29 81

HHhH

저. 로랑 비네 / 역. 이주영
황금가지

소설은 픽션이라고 배운 우리에게 이 책은 작가가 10여 년간 수집한 사료를 토대로 역사적 인물과 사실, 작가의 이야기, 책의 집필 과정을 오가는 새로운 형식을 접하게 해준다.



111

최민아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저. 장정일
마티

2차 창작물이 1차 창작물보다 더욱
큰 힘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
책 전반을 관통하는 강한 일관성과
논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강렬한
에너지와 통쾌함을 전해준다.



82 메트로폴리스 파리와 서울의 숨은 이야기

봄. 춘. 0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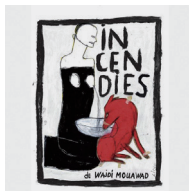
112

최민아

Scorched

저. Wajdi Mouawad
Playwrights Canada Press

부족 학살과 대를 이어 연속된 운명의
고리 속 여인의 삶을 오이디푸스 신화와
오각형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증명하는
과정에 빚대어 풀어낸 희곡.
꼭 번역됐으면 하는 작품이다.



열일곱, 인생을 말하다

청소년기는 꿈을 찾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이다.
“상처를 곱씹으며 의미를 찾고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으며
진정한 욕망을 꿈꾸게 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철학 교사
안광복이 삶에 물음을 던졌다.

열일곱, 인생을 말하다

봄. 春. 05.11 83

113

심리 조작의 비밀

저. 오카다 다카시 / 역. 황선중
어크로스

일본 정신의학계의 권위자인 오카다
다카시가 놀라운 실험과 진기한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우민화 논리의 구조를 보여준다.

안광복
서울 중등고등학교 철학교사



장자, 아파트 경비원이 되다

저. 김경운

사계절

저자는 관찰자이자 주인공인 민주와 경비원 장두루 할아버지의 관계를 축으로 사건을 펼치면서 일상 속에 장자의 지혜를 풀어낸다.



84 열일곱, 인생을 말하다

생활의 사상

저. 서동욱

민음사

철학자이면서 시인, 문학평론가이기도 한 서동욱의 에세이. 일상에 대한 인문학적 사색의 표본.



116

안광복

김선우의 사물들

저. 김선우

단비

시의 언어로 담은 철학적 통찰. 흔히 볼 수 있는 20여 개 물건을 시인의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빚어냈다.



봄. 春. 05.11 85

117

안광복

철학 강패

저. 노야 시게키 / 역. 김경원

갈라파고스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철학적 과정을 대화로 푼 책이다. '철학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이 가능한 책이다.



쟁이의 생각법

생각은 모든 새로운 가치를 낳는 원천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쟁이'라고 한다. 생각이 중요한 시대, 생각을 키우는 일을 하는 우리 시대 쟁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86 쟁이의 생각법

봄. 춘. 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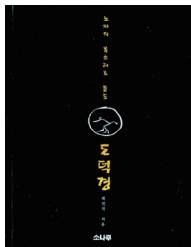
118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저. 최진석
소나무

노자의 해설서들은 종종 노자의 난해함을 이용해 자신의 해박함을 드러내려 하나, 최진석 교수의 도덕경은 가장 노자에 충실하고 담백하게 노자를 해설한다.

이용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기억의 공간 『소제동』, 책으로 돌아오다- 이야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마을

마을주민과 대전시민들이 ‘소제동’과 ‘나’에 관해 쓴 글을
바탕으로 책공방북아트센터 김진섭 대표와 마을책과 나만의
책을 엮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점차 고유한 색을 잃어가는
소제동과 ‘나’의 이야기를 되살리고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

기억의 공간 『소제동』, 책으로 돌아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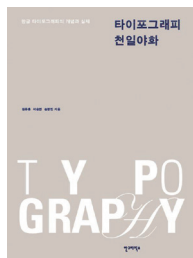
봄. 춘. 05.20 87

119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김진섭
전북 완주군 삼례
책공방북아트센터 대표

저. 원유홍 외
안그래픽스

타이포그래피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책. 타이포그래피의
기초와 실전 학습,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다.



120

김진섭

인권의 발명

저. 린 헌트 / 역. 전진성
돌베개

18세기 프랑스사의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저자는 인권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며
‘공감’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통해
지속해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88 기억의 공간 『소제동』, 책으로 돌아오다

봄. 춘. 0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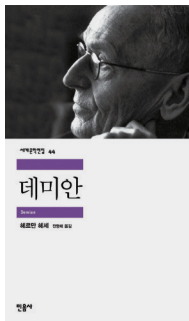
121

김진섭

데미안

저. 헤르만 헤세 / 역. 전영애
민음사

10대 시절 모든 청춘이 읽으면 좋을
책.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우리가 사랑한 나무

강관권 교수와 나무에 얽힌 역사와 사연, 나무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 등을 공유했다. ‘큰 키 나무뿐만 아니라 작은 키 나무도 가치 있고,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발견한 강의였다.

우리가 사랑한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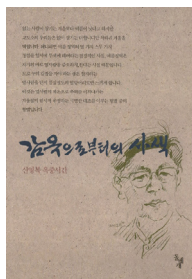
봄. 春. 05.22 89

122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강관권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저. 신영복
둘베개

한 지식인의 사색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로 만들어내는 글이 감동적이다.



123

강관권

돈황본 육조단경

저. 정성본

한국선문화연구원

중국 당나라 육조 혜능의 어록인
단경은 글자조차 몰랐던 무식꾼이
어떻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며, 자존 방법을 일깨워준다.



90 우리가 사랑한 나무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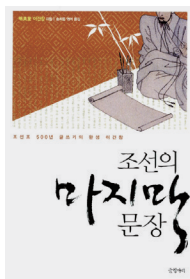
강관권

조선의 마지막 문장

저. 이견창 / 역. 송희준

글항아리

조선시대 참지식인의 전형뿐 아니라
글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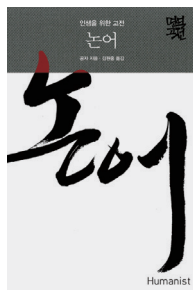
125

강관권

논어

저. 공자 / 역. 김원중
휴머니스트

공자의 빛나는 지혜를 만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첫 장 첫 문장에서
공부의 방법과 의미를 일깨워준다.



봄. 春. 05.22 91

126 **중복추천** 48

강관권

사기열전

저. 사마천 / 역. 연변대학 고적연구소
서해문집

불굴의 의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창조정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술의 탄생과 죽음- 현대미술의 전개

미술계의 혁명적인 지각 변동이 그 전성기와 그 이후에 얼마나 놀랍도록 독창적이고 때로는 기괴하며 또 ‘미술 같지도 않은’ 미술을 낳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사례를 접한 시간. 이를 통해 현대 미술을 감상하는 하나의 예리한 시각을 얻었다.

92 미술의 탄생과 죽음-현대미술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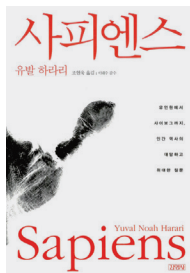
127 중북추천 68, 327

사피엔스

저. 유발 하라리 / 역. 조현욱
김영사

인간이라는 존재의 시원과 전망에
대한 유력한 이야기.

조주연
미술이론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저. 알랭 드 보통 / 역. 정영목
청미래

우리가 가장 강렬한 감정으로
경험하는 사랑의 절절함과 무심함을
강렬하게 알려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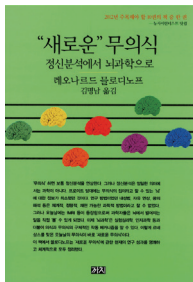


봄. 춘. 05.24 93

“새로운” 무의식

저. 레너드 블로디노프 / 역. 김명남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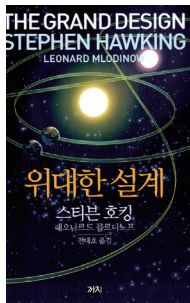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타자,
무의식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오랜
주장을 뇌과학의 최근 연구로
반박하고 보완하는 낙관적인 책.



위대한 설계

저. 스티븐 호킹 / 역. 전대호
까치

다 이해할 수 없었던(가령 양자역학의 세계 같은) 책이지만, 우리가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려준다.



김남우의 희랍 서정시 읽기

서양고전철학과 희랍 서정시를 공부하고, 최근 『카르페디엠』을 펴낸 김남우 번역가에게 희랍의 서정시에 대해 들어왔다.

김남우의 희랍 서정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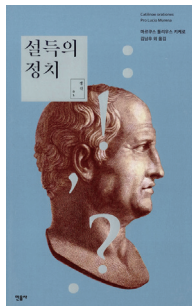
봄. 春. 05.24 95

131 설득의 정치

김남우
정암학당 연구원, 번역가

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
역. 김남우 외
민음사

로마 최고의 정치가이자 연설가였던
키케로가 남긴 위대한 연설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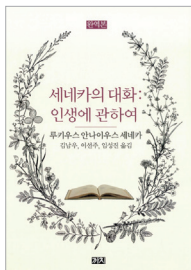
132

김남우

세네카의 대화

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
역. 김남우 외
까치

고통과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위로와 위안의 철학.



96 김남우의 희랍 서정시 읽기

133

김남우

아이네이스

저. 베르길리우스 / 역. 김남우
열린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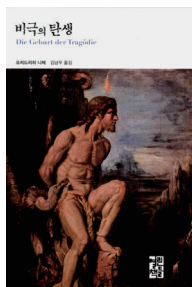
로마의 건국 신화를 배경으로 쓰인
로마 최고의 서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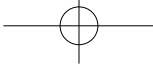
비극의 탄생

저. 프리드리히 니체 / 역. 김남우
열린책들

희랍 비극의 문화사적 이해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현대의 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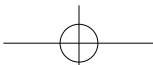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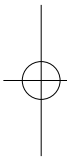


봄. 春. 05.24 97



여름. 夏.

06~08월





강연자 추천도서

바다, 도시 그리고 부산- 해양도시 부산과 해양문화

지역문화의 역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해양문화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해양의식 속에 녹아 있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한 해양문화 작품을 통해 해양문화와 지역문화의 접점을 찾아봤다.

100 바다, 도시 그리고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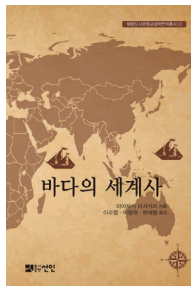
135

바다의 세계사

저. 미야자키 마사카츠 / 역. 이수열 외
도서출판선인

인터넷이나 항공망에 비하면 바다 네트워크는 평범해 보이지만, 세계 물류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의 육지 중심의 세계사를 바다의 시좌로 다시 읽은 역사서. 인식의 쇄신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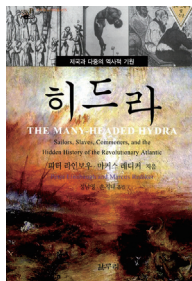
구모룡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히드라

저. 마커스 레디커 외 / 역. 정남영 외
갈무리

제국과 다종의 역사적 기원을 해양과
연관하여 문화인류학자의 시각으로
서술했다. 공식적인 역사서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해적 선장, 아프리카
노예들, 진정한 아메리카 혁명의
주역인 잡색 부대 등을 만날 수 있다.



여름. 夏. 06.03 101

군도의 역사사회학

저. 이시하라 슌 / 역. 김미정
글항아리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과 이오 열도의
시좌에서 근대일본과 세계를 고찰했다.
중심의 시선을 주변으로 뒤집어 본
역사사회학으로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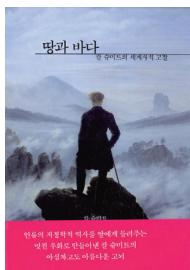
138

구모룡

땅과 바다

저. 칼 슈미트 / 역. 김남시
꾸리에

땅, 하천, 연안, 바다의 충위를
설명하고 대양적 전환의 세계를
나직한 목소리로 풀어준다.



102 바다, 도시 그리고 부산

여름. 夏. 06.03

139

구모룡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

저. 김시덕
메디치미디어

동아시아의 역사를 해양과 대륙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여
기존 대륙 혹은 국가 중심의 역사를
전복한다.



[제노사이드 특강]

제노사이드(인종학살)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어떤 집단을 완전히 몰살’하는 제노사이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 사례와 이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 관련 법 그리고 한국에서의 제노사이드 인식 등 전반적인 개념을 짚어보고 제노사이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봤다.

제노사이드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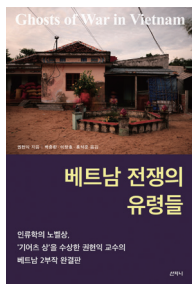
여름. 夏. 06.06 103

140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최호근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저. 권현익 / 역. 홍석준 외
산지니

전쟁이 베트남인에게 새겨놓은 상흔을 인류학자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서술한 책이다. 전쟁과 집단기억, 전쟁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 한국전쟁과 우리 사회를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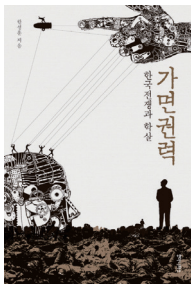
141

최호근

가면권력

저. 한성훈
후마니타스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준 영향을
민간인 학살에 초점을 맞춰 조명한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전쟁과 학살에
관한 경험연구에 기초하여, 폭넓은
시아에서 전쟁의 의미를 살피는 책이다.



104 제노사이드 특강

여름. 夏. 06.06

142

최호근

관문점 체제의 기원

저. 김학재
후마니타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종전이 아닌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 분단체제의 고착과 한국인의
삶에 끼친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한
역작이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파주·고양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과 분단 접경 지역인 파주·고양 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례를 통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의
본질과 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의 진실을 되짚어 봤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파주·고양 지역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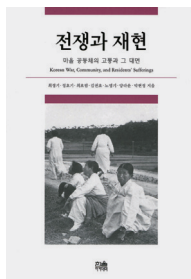
여름. 夏. 06.06 105

143 전쟁과 재현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장

저. 최정기 외
한울

국군 내부 남로당 계열의 반란이라는
여순사건에 대해 기존의 편협한
시각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 특히
구례 지역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독창적 연구.



밤의 눈

저. 조갑상
산지니

한국전쟁과 국민보도연맹사건을
겪던 김해 지역 주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소설이다.



106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파주·고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 역. 박은정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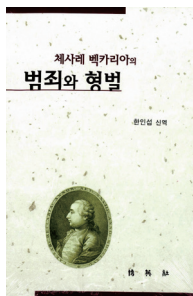
구술 기록의 대중화를 보여주는 책.
전쟁의 과정에서 군인과 민간인, 남성과
여성 등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지며
그 피해 역시 모두에게 남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와 형벌

저. 체사레 벡카리아 / 역. 한인섭
박영사

근대적 법질서가 작동하는 사회도 약간의 혼란만으로 무질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특히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저자의 경고는 지금도 새겨들어야 한다.



여름. 夏. 06.06 107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저. 한나 아렌트 / 역. 김선옥
한길사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몇 권 안 되는 연구서이다.



너무 과학적인 순간들

‘과학적인 순간들을 알아채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상대성 이론』, 『물리학 클래식』 등의 저서를 통해 과학을 쉽게
설명해온 이종필 교수가 생활 속 에피소드를 통해 어려운
물리학적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108 너무 과학적인 순간들

148

풀하우스

이종필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연구교수

저. 스티븐 제이 굴드 / 역. 이명희
사이언스북스

대가의 빛나는 통찰이 돋보이는 책.
메이저리그에서 4할 타자가 사라진
이유와 진화의 본질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149

이종필

공기의 연금술

저. 토머스 헤이거 / 역. 홍경탁
만나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이자
전쟁에서 독가스를 개발한 과학자의
야누스적인 이야기.



여름. 夏. 06.09 109

150

이종필

사라진 스푼

저. 샘 킨 / 역. 이충호
해나무

주기율표 각 원소에 얹힌 흥미진진한
무협지. 원소 발견의 역사, 탐욕과
모험의 역사, 과학자들의 일화가
흥미진진하게 녹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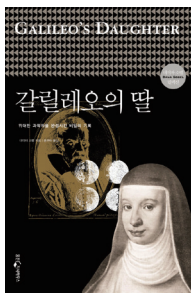
151

이종필

갈릴레오의 딸

저. 데이바 소벨 / 역. 홍현숙
웅진지식하우스

갈릴레오의 딸을 통해 갈릴레오의
생애를 돌아보는 책. 갈릴레오의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을 많이 알 수 있다.



110 너무 과학적인 순간들

여름. 夏. 06.09

152

이종필

수학의 몽상

저. 이진경
휴머니스트

학교에서 배운 수학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좋은 기회.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음악사

출판의 본격화시대, 음악세계의 변천 과정을 비교해왔다.
홍승찬 교수의 음악사 인문강의를 통해 현대사회를 재조명했다.

음악사

여름. 夏. 06.12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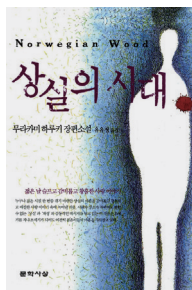
153

상실의 시대

저. 무라카미 하루키 / 역. 유유정
문학사상사

청춘을 지나고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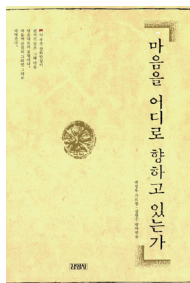
154

홍승찬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저. 백성옥 / 역. 김원수
김영사

백성옥 교수의 가르침을 담은 책으로,
불교 법문과 불가 여담을 모았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 책이 지표가
될 것이다.



112 음악사

여름. 夏. 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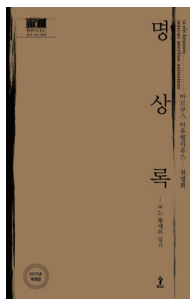
155

홍승찬

명상록

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역. 천병희
도서출판 숲

플라톤이 꿈꾸던 ‘철인(哲人)황제’를
구현한 전설적 인물인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젊은이에게 권한다.



현대음악의 이해

어렵고 난해하게 여기는 현대음악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작곡가 이진용의 안내로 현대음악의 개념과 실제 예를 만났다.

현대음악의 이해

여름. 夏. 06.19 113

156

밤은 책이다

저. 이동진
예담

‘빨간책방’,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 잘 알려진 독서 애호가 이동진의 책. 독후감 형식의 이 책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얻길 바란다.

이진용

작곡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역임



157

이건용

생각의 오류

저. 토머스 키다 / 역. 박운정
열음사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반 이상이
사실은 그른 것이다. ‘생각의 오류’를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면서, 무언가를
믿기 전에 증거를 찾아내 평가해보는
진정한 회의주의자가 되기를 제안하고
있는 책.



114 현대음악의 이해

여름. 夏. 06.19

158

이건용

사막을 건너는 여섯가지 방법

저. 스티브 도나휴 / 역. 고상숙
김영사

삶의 지혜를 주는 지침서. ‘모양이
변하는 모래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라가라’,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많이 걸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등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침이 대부분이다.



어린이 인문학 강좌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쉽고 재밌는 인문학 이야기. 소설가 노경실의 안내로 생애 첫 인문학을 만났다.

어린이 인문학 강좌

여름. 夏. 06.20 115

159

노경실

소설가

어린이 인문학 여행(전 3권)

저. 노경실

생각하는 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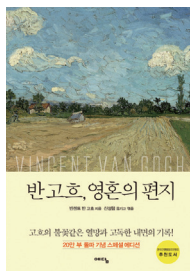
신화, 철학, 천문학, 미술, 문학, 음악,
환경, 심리학, 동물행동학, 식물학,
인문학의 기초를 공부하도록 구성된
책. 어린이와 부모님,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저. 빈센트 반 고흐 / 역. 신성림
예담

반 고흐가 동생 테오와 다른 그림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모은
책이다. 고흐는 그림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독서를 통한 생을 살았기에
이 편지로 영혼의 울림을 풍부하게
들을 수 있다.



116 어린이 인문학 강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저. C. S. 루이스 / 역. 김선형
홍성사

인간은 악마 때문에 악마처럼 되는가?
아니면 자신이 악마의 본성을 넘치도록
품고 있는가? 개인의 악이 사회를
악하게 하는가, 사회의 악이 개인을
악하게 만드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작지만 거대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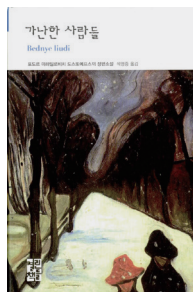
162

노경실

가난한 사람들

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 역. 석영중
열린책들

도스토예프스키의 첫 작품이자 그를 유명작가로 만든 소설. 제목처럼 온통 가난하고 불쌍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마저 가난하지 않음을 절절히 알려주어 우리의 양심을 깨뜨린다.



여름. 夏. 06.20 117

163

노경실

상계동 아이들

저. 노경실
사계절

상계동에 산 적 있는 작가가 가난한 아이들과 공부하며 겪은 이야기를 엮었다. 어린이문학에서 리얼리즘 문학의 최고봉, 지금도 변함없이 가난하고 소외당한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려준다.



가장 식물다운 아름다움

원예학을 전공한 식물 세밀화가 이소영.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식물 이야기와 그에 담긴 감성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앎과 미적 감각을 선사했다. 인간인 우리가 식물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기르고, 가공하는 다양한 과정을 대하는 새롭고 진지한 시선을 만났다.

118 가장 식물다운 아름다움

여름. 夏. 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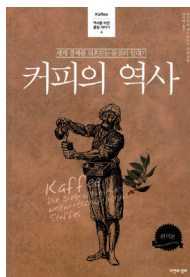
164

커피의 역사

이소영
식물세밀화가

저. 하인리히 에두아르트 야콥 / 역. 남덕현
자연과생태

커피란 식물을 오래도록 현미경으로 바라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커피란 작은 씨앗이 지내온 역사와 세계가 담겨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일상 위에 널브러진 우리의 사소한 생각을 정리하고 단단한 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봤다. ‘어떻게 쓸까’에서 시작해 ‘삶의 결을 바꾸는 글쓰기’까지 다양한 글쓰기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눈 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여름. 夏. 06.23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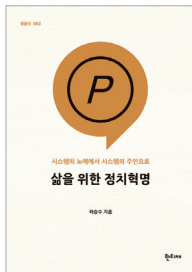
165

삶을 위한 정치혁명

안전모
<작은책> 대표

저. 하승수
한티재

20년 동안 시민운동과 녹색당 활동을 경험해 온 하승수는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당제로 고착될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를 바꿔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6

안건보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

저. 홍세화 외
교육공동체벗

조금만 불온해도 잡혀가는 얼토당토
않은 세상, 착하고 온순하기로 으뜸
가는 집단인 교사에게 더 불온해지라
고 강요한다. 내가 교사였다면 정말
이대로 따라 하고 싶을 정도로
통쾌한 책이다.



120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167 중북추천 108

안건보

노동의 배신

저. 바버라 에런라이크 / 역. 최희봉
부키

저자가 3년에 걸쳐 식당 웨이트리스,
청소부, 요양원 보조원 등으로 일하며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로 정말 살 수
있는지를 체험했다. 미국 사회,
불평등의 깊은 골을 까발리고 추악한
현실을 고발한다.



조까라마이싱

저. 김일석

산지니

투쟁과 서정의 시를 묶은 김일석의
다섯 번째 시집. 약자들과 연대하고
위로하는 시. 관념이 아닌 현실,
시인의 시는 솔직하다.



철학, 좋아하세요?

철학은 자연에 실재하는 자연과학이나 사람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심리학과 달리 실제 삶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우리 삶과 철학을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122 철학, 좋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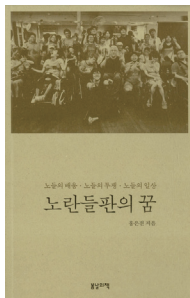
169

노란들판의 꿈

고병권
저자

저. 홍은진
봄날의책

노들장애인야학의 배움과 투쟁,
일상에 대한 이야기. 이들이 벌인 싸움
덕분에 세상이 나은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들의 깨달음 덕분에
세상도 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눈물겹고도 웃음 터지게 하는
이야기들!



170

고병권

블랙 자코뱅

저. 시 엘 아르 제임스 / 역. 우태정
필맥

아이티는 아프리카에서 잡혀 온
노예들이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스스로 나라를 세운 유일무이한 사례다.
유럽의 근대 혁명의 편협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던 놀라운
노예혁명 이야기를 접해보시길!



여름. 夏. 06.23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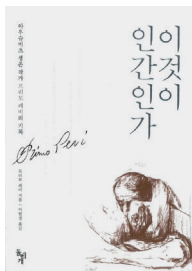
171 중복추천 282

고병권

이것이 인간인가

저. 프리모 레비 / 역. 이현경
둘베개

인간에게 들려주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
아무런 치장 없이 인간이라는 진실과
대면하게 하는 이야기.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도록,
그래서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



아티스트 토크-이재삼

이재삼은 20년간 작업한 목탄으로 달빛에 비친 자연을 그렸다. 그에게는 밤의 미학, 음지, 그들의 정서, 습함의 미묘한 육감이 중요하다. 대형목탄화의 제작기법, 작품의 소재인 한국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 작품의 시간인 달빛 비추는 밤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124 아티스트 토크-이재삼

172

그들에 대하여

이재삼
아티스트

저. 다니자키 준이치로 / 역. 고운기
놀와

일본의 전통문화와 고유한 정서를
동아시아적 미의식의 섬세함과 예민한
관찰력으로 묘사한 산문집.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간간

저. 고미숙
북드라마

평생 제목만 알고 읽지 못할 고전,
열하일기. 인문학자 고미숙의
시선으로 박지원 할아버지를
유쾌하게 만나다.



여름. 夏. 06.24 125

한국의 정체성

저. 탁석산
책세상

한국적이란 말이 한국인에게 낯선
까닭은 무엇일까? 한반도에 사는 나의
실체에 대해 자문자답을 유도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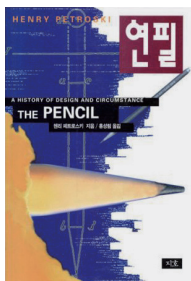
175

이재삼

연필

저. 헨리 페트로스키 / 역. 홍성립
지호

인간이 만든 하나의 단순한 물체에
대하여 이토록 집요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5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연필을 말하는 책.



126 아티스트 토크-이재삼

여름. 夏. 0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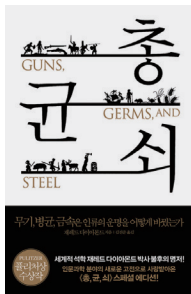
176

이재삼

총 균 쇠

저. 재레드 다이아몬드 / 역. 김진준
문학사상사

인류문명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운명
발달사의 역사여행.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각 대륙의
문명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인종적 민족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적
요소 때문이라고 말한다.



도시재생을 디자인하다- 잃어버린 낙원, 소제동을 상상하다

공공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안테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민과 청년이 사회적 과제를 의식하고 활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눴다.

도시재생을 디자인하다

여름. 夏. 07.22 127

177

책 잘 만드는 책

저. 김진섭
두성북스

말 그대로 '책'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 삼례에서 책 공방을 직접 운영하는 김진섭 북바인딩 장인의 비결이 모두 담겨 있다.

나태훈
도시재생 디자인 기획자



178

나태훈

가짜 팔로 하는 포옹

저. 김중혁
문학동네

김중혁 작가의 책을 좋아한다.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움직이는 그의 유쾌하고 심플한 문장이 살아 있는 책.



128 도시재생을 디자인하다

여름. 夏. 07.22

179 중북추천 49

나태훈

어린왕자

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 역. 박성창
비룡소

어린왕자는 볼 때마다 새롭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시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어린 왕자가 무슨 말이든 걸어올 것이다.



가희(歌姬) 덩리쥘(鄧麗君)의 삶과 노래

타이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던 덩리쥘의 음악적 예술세계를 되돌아보고, 6·4 천안문 사건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던 그녀의 사상을 알아봤다.

가희(歌姬) 덩리쥘(鄧麗君)의 삶과 노래

여름. 夏. 08.10 129

180 슬픈 열대

최창근
저술가

저.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 역. 박옥줄
한길사

원주민의 삶과 문화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틀림’과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구의 폭력적 동일성을 고발한 레비스트로스의 대표작이다.



181 중북추천 220,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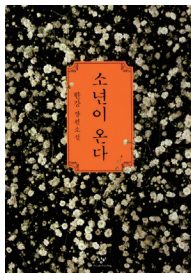
최창근

소년이 온다

저. 한강

창비

한국 현대사 최대의 트라우마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한 소년과 주변 사람, 남겨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생생하게 되살리고 있다.



130 가희(歌姬) 덩리쥘(鄧麗君)의 삶과 노래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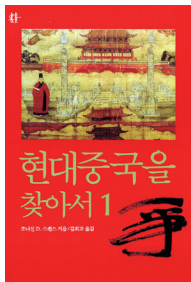
최창근

현대 중국을 찾아서 (전 2권)

저. 조너선 스펜스 / 역. 김희교

이산

청(淸)에서부터 현대 중국까지 350여 년의 역사를 꿰뚫는 내러티브가 돋보이는 중국현대사의 명저다. 중국 근·현대사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기본서다.



침묵

저. 엔도 슈사쿠 / 역. 공문혜
홍성사

도쿠가와막부 치하에서 벌어진
크리스천 박해를 다룬 엔도 슈사쿠의
대표작이다. '하느님은 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여름. 夏. 08.10 131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전 2권)

저. 박명림
나남출판

‘현재 진행형’인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한 실증 보고서다. 직접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탄탄한 이론적
틀 속에서 구현해 한국전쟁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종군위안부

저. 노라 옥자 켈러
밀알

하와이를 배경으로, 모녀간의 갈등을
통해 한국 위안부 역사를 심도 있게 다
룬 작품. 과거 위안부였던 여인과 그 딸
의 이야기를 번갈아 들으면서 역사를
되짚어보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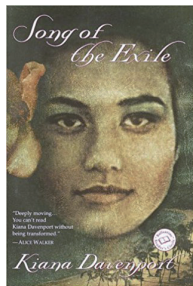


여름. 夏. 08.19 133

Song of the Exile

저. Kiana Davenport
Ballantine Books

하와이, 미국본토, 프랑스, 중국
상해 등 세계를 배경으로 열리는
사랑 이야기 안에서 한국위안부
역사를 세계 2차대전의 큰 맥락에서
살펴보는 작품.



Restart!

다시 시작하는 글쓰기

써도 써도 늘지 않는 글쓰기, 어떻게 할까? 30년 내공을 가진
원재훈 작가가 메모, 일기, 편지, 여행기 등 주변에서
글감을 찾는 방법부터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쓰는 법까지
모두 털어놨다.

134 Restart! 다시 시작하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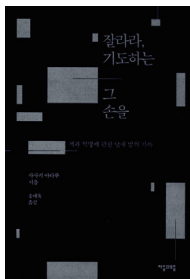
188 중독추천 12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저. 사사키 아타루 / 역. 송태욱
자음과모음

독특하면서 흥미로운 책이다. 책을
읽고 쓰는 행위가 혁명을 이끌고
왔다니 이 책을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재훈
시인, 작가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저. 지그문트 바우만 / 역. 안규남
동녘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에 대한
바우만의 사회학적 대답.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전문가의
손길로 잘 다듬은 책이다.



여름. 夏. 08.24 135

카를 융, 기억 꿈 사상

저. 칼 구스타프 융 / 역. 조성기
김영사

도전하기 힘든 정신분석 권위자의
학문 세계를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융의 제자인 아니엘라 야페가 융과
대담해서 모은 글을 다시 융이 한 문장
한 문장 손보아서 엮었다.



191

원재훈

중얼거리는 천사들

저. 박해석

문학동네

우리 일상과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시인의 다정함. 다가오는 세월을
단련시키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진다.

문학동네시인선 094 박해석 시
집 중얼거리는 천사들

136 Restart! 다시 시작하는 글쓰기

여름. 夏. 08.24

192

원재훈

광장 / 구운몽

저. 최인훈

문학과지성사

분단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고뇌하던 청년의 모습을 그린
장편소설.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택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단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광장 / 구운몽

최인훈 연필화

문학동네

서구 문화와 와인: 와인 전문가 고흥욱에게서 듣는 유럽 문화의 이해

『성경』,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등 고전문학과 와인에 얽힌 이야기를 음식평론가이자 와인평론가인 고흥욱에게서 들었다. 어떻게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역사와 경제를 좌우하는 주요한 식품이 되었는지 이해하고,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는 시간이었다.

서구 문화와 와인

여름. 夏. 08.24 137

193

덩샤오핑 평전

저. 에즈라 보겔 / 역. 심규호 외
민음사

시진핑의 행보를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덩샤오핑의 위대함. 깊이를
알 수 없는 덩샤오핑에 대한 방대한
탐구. 침묵과 기다림. 현대 중국에 대한
통찰.

고형욱
음식 평론가, 와인 평론가



194

고형욱

조운범의 파워 클래식(전 2권)

저. 조운범
살림

쉽고 친근한 클래식 입문서.
연주자이기에 평론가들과는 다른
접근 범위가 있다. 작곡가들의 생을
읽으며 음반을 하나씩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린다.



138 서구 문화와 와인

195

고형욱

영화의 맨살

저. 하스미 시게히코 / 역. 박창학
이모션북스

영화 비평이란 이런 것일까. 편견 없이
텍스트에 접근한다. 가장 감독도
때로는 졸작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걸작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



196

고형욱

문구의 모험

저. 제임스 워드 / 역. 김병화
어크로스

세상엔 별의별 마니아가 다 있다.
문구에 대한 집착, 집요한 탐구. 깊이가
있으면 재미도 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펜스레 다시 보게 만드는 책.



여름. 夏. 08.24 139

197

고형욱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저. 전봉희 외
동녘

한옥에 관한 책은 많다. 그런데도
빼어난 책을 쓸 수 있다는 게 놀랍다.
명쾌한 시선. 한옥은 점점 없어져
가지만, 이 책으로 머릿속에 담아둔다.



시, 지구를 만나다

생태적 글쓰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은 생태로 둔갑한 자본, 기술을 분별하지 못하는 탓이다. ‘초록을 쓰다’ 시리즈 생태주의 시인 이문재에게서 진짜 생태 사유를 확인했다. 이문재의 ‘손으로 만나는 지구’를 통해 잃어버린 감각을 깨우고 생태 글쓰기로 들어가 봤다.

140 시, 지구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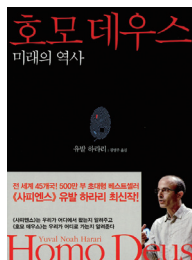
198 중독추천 32

호모 데우스

이문재
시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저. 유발 하라리 / 역. 김명주
김영사

인류 탄생 이래 처음으로 지능과
의식이 분리되는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는 책.



199

이문재

나무 수업

저. 페터 볼레벤 / 역. 장혜경
이마

우리는 나무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나무의 언어, 교육, 문화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펼쳐진다.



여름. 夏. 08.29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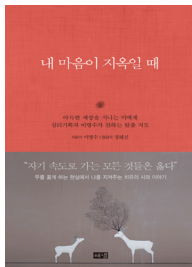
200

이문재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저. 이명수
해냄

시를 통해 자기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엮은 시집. 시가 '부작용 없는
치유제'로 거듭난다.



가을. 秋.

09~11월



강연자 추천도서

한 인문학자가 본 종교개혁

『꺼지지 않는 불, 종교개혁가들』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전야로서 르네상스와 단테를 살피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 올린 마르틴 루터를 조망한 뒤, 종교개혁이 서양문화에
끼친 영향을 알아봤다.

144 한 인문학자가 본 종교개혁

201

구스타프 슈바브의 그리스 로마 신화(전 3권)

저. 구스타프 슈바브 / 역. 이동희
휴머니스트

토막 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 원전에 기초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흐름을 가지고 제대로
보여주는 책이다.

이동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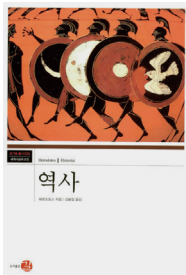
202

이동희

역사

저. 헤로도토스 / 역. 김봉철
길

고대 그리스사 전공자에 의한
희랍어 원전 번역으로, 고대 그리스를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고전이다.



가을. 秋. 09.04 145

203

이동희

라이프니츠가 만난 중국

저. 라이프니츠 / 역. 이동희
이학사

17세기 동서의 사상적 교류 과정뿐
아니라 동양의 사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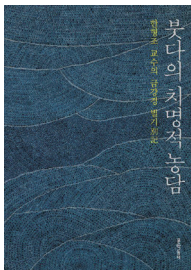
204

이동희

붓다의 치명적 농담

저. 한형조
문학동네

동양철학을 삶의 문제로 귀환시킨
한형조 교수의 해설서. 『금강경』이
전하고자 하는 근본 ‘정신’을 일상의
에피소드로 소개하며 깨달음을 준다.



146 한 인문학자가 본 종교개혁

가을. 秋. 09.04

205

이동희

조선시대의 삶, 풍속화로 만나다

저. 윤진영
다섯수레

풍속화를 통해 과거의 생활 습속이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펼쳐 보여준다.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살피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다.



만화로 삶을 그리다

박재동은 근대만화의 풍자 정신을 우리 시대에 계승한
시사만화가다. 때론 날카롭게 때론 따뜻하게 세상을 그리는
박재동의 만화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만화로 삶을 그리다

가을. 秋. 09.05 147

206

세 여자(전 2권)

박재동
만화가

저. 조선희
한겨레출판

조선희 장편소설.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세 명의 여성혁명가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의 삶을 담담히
그려냈다.



207

박재동

동화독법

저. 김민웅

이봄

너무 익숙해서 다시 볼 이유가 있을까 싶은 동화 11편을 새롭게 해석한 책. 지금까지 결코 깨닫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게 한다.



148 만화로 삶을 그린다

가을. 秋. 09.05

208

박재동

도대체 학교가 뭐길래!

저. 이상석

양철북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교사로 유명한 이상석이 25년 만에 펴낸 교육 에세이. 요즘 아이들, 요즘 학교, 요즘 50대 교사의 존재 양식을 엿볼 수 있다.



라이너노트 쓰는 법-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음악 글쓰기

문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음반 해설지를 직접 작성하고,
출간 과정까지 경험해봤다. 음악평론가 김경진이 글쓰기
여정을 안내했다.

라이너노트 쓰는 법-자신과 타인을 위한 음악 글쓰기

가을. 秋. 09.06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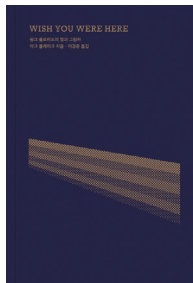
209

Wish You Were Here

저. 마크 블레이크 / 역. 이경준
안나푸르나

핑크 플로이드의 활동, 멤버 간의
관계 등을 폭넓게 다룬다. 음반 해설도
함께 엮어 읽는 재미가 있는 책.

김경진
음악문화공간 스트라디움 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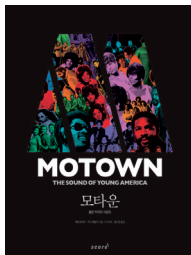
210

김경진

모타운: 젊은 미국의 사운드

저. 애덤 화이트 외 / 역. 이규탁 외
태림스코어

모타운 레이블의 역사가 담긴 책이다.
‘흑인’이 주도한 모타운 음악과
‘백인’이 주도한 모타운 비즈니스가
어떻게 모타운의 성공을 끌어냈는지를
흥미진진하게 서술한다.



150 라이너노트 쓰는 법-자신과 타인을 위한 음악 글쓰기

가을. 秋. 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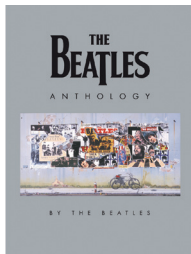
211

김경진

비틀즈 앤솔로지

저. 비틀즈
오픈하우스

비틀즈 멤버들이 언술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구성한 책으로,
자서전의 성격을 띤 유일한
비틀즈 책이다. 비틀즈를 좋아한다면
읽기를 권한다.



이만큼 가까운 미국

김봉중 교수의 안내로 ‘움직이는 미국’을 조망하고 그와 동시에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움직이는 우리’를 살펴봤다. 새로운 시대에 견지해야 할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안목을 늘린 기회.

이만큼 가까운 미국

가을. 秋. 09.07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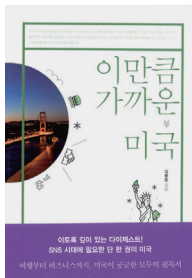
212

이만큼 가까운 미국

저. 김봉중
창비

미국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한미관계 등을 포괄해서 미국 문명 전체를 조망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시사한다.

김봉중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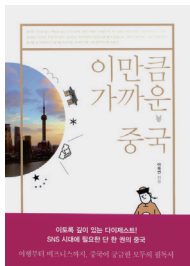
김봉중

이만큼 가까운 중국

저. 이옥연

창비

전통 시대부터 시작해 근대 이후
 약 50년간 교류가 단절되었던 시간을
 복기하고, 개혁 개방 이후 급속히
 달라진 현대 중국의 모습을 폭넓게
 담았다. 쉽고 간결하다.



152 이만큼 가까운 미국

214

김봉중

이만큼 가까운 일본

저. 강태웅

창비

가족관, 입시 경쟁, 오타쿠로 대표되는
 서브컬처 등 평소 궁금했던 점과 더불어
 재일 교포, 영토 분쟁, 역사 교과서
 문제 등 민감한 사안까지 두루 살펴본다.



215

김봉중

오늘의 미국을 만든 미국사

저. 김봉중
역사의아침

프런티어, 민주주의, 지역갈등,
다문화주의 등의 코드로 미국의
정체성을 해부한 책. 객관적인 잣대로
미국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가을. 秋. 09.07 153

216

김봉중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저. 김봉중
위즈덤하우스

미국 대통령 리더십을 통해서
미국 성공 신화의 역사적 전통을
추적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리더와
리더십이 필요한가 생각하게 한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다

건축가 이일훈만의 남다른 관찰력과 사유방식은 평소에도 생태적 사유를 넓힐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자신만의 풍성한 생태 글쓰기 방법을 함께 곁들였다.

154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다

217

독도강치 멸종사

이일훈
건축가

저. 주강현
서해문집

해양문화(명)에 대해 천착하는 시선이
깊고 또 넓음을 보여준다. 읽을 때는
갯벌을 걷는 듯, 읽고 나선 파도를 만난
듯.



218

이일훈

다시, 관계의 집으로

저. 최우용

궁리

젊은 건축인이 학습한 시선(눈)을 넘어
경험한 마음(심장)을 적은 글들이 축축
또 촉촉하다. 단단한 물질로 구축된
건축이 얼마나 부드러운가를 느끼게
하는 책.



가을. 秋. 09.12 155

219

이일훈

BOOK TOOLS

저. 김진섭

안그라픽스

종이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그 책을 만드는 도구를 알고 있는가.
같은 도구로 독재자는 사람을 죽이고,
어떤 이는 책을 만든다. 도구들은
못생길수록 아름답구나.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 이야기

이탈리아의 얼굴 없는 작가, 엘레나 페란테가 쓴
‘나폴리 4부작’의 작품세계를 고찰했다. 우정, 페미니즘,
이탈리아의 역사, 사회문제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입체적으로 읽고, 이를 경유해 개인의 삶을 반추했다.

156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 이야기

220 중북추천 181, 360

소년이 온다

김지우
번역가

저. 한강
창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결코 신파적이지 않은 우아한 슬픔의
정서로 그려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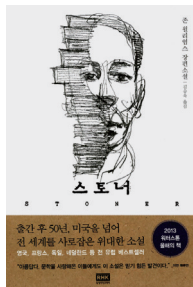
221

김지우

스토너

저. 존 윌리엄스 / 역. 김승욱
알에이치코리아

평범한 삶이 가진 의미와 무게를
담담한 필체로 풀어간 작품. 읽은 후
여운이 오래 남는다.



가을. 秋. 09.12 157

222

김지우

마르코발도 혹은 도시의 사계절

저. 이탈로 칼비노 / 역. 김운찬
민음사

산업화가 한창이던 1960년대 이탈리아
노동자의 삶을 우화적인 스타일로
풀어나간 소설. 아이러니하고
유머러스한 필체로 인해 힘겨운
노동자의 삶이 더욱 강하게 부각된다.
칼비노 특유의 위트가 느껴진다.



그림으로 철학하기

그림을 들여다보며 막힌 사유의 물꼬를 트고 잠든 사유를 일깨웠다. 그림의 작은 단서에서 시작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은 다른 예술과 만나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된다. 인문학자 박홍순은 그림을 감상하며 철학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158 그림으로 철학하기

223

장자

박홍순
인문학자

저. 장자 / 역. 김학주
연암서가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다. 통념을
뒤집는 생각의 힘, 지식을 넘어서는
성찰의 힘, 존재의 의미를 찾는
내면의 힘을 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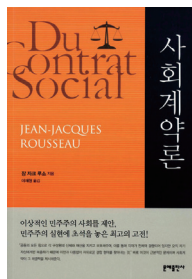
224

박홍순

사회계약론

저. 장 자크 루소 / 역. 이재형
문예출판사

근대와 현대사회의 핵심 구성 원리를 담고 있다. 개인이 어떻게 사회와 국가의 구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원리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가을. 秋. 09.13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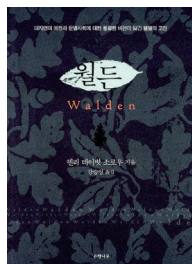
225

박홍순

월든

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 역. 강승영
은행나무

월든 숲에서 모색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국가의 억압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통찰은 인권운동의 발상과 만난다.



작가가 들려주는 읽기 비법: 슬로 리딩, 사유의 힘을 키우다

등단 후 10년 동안 100여 권이 넘는 책으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동화작가 박현숙. 그가 책을 천천히, 깊이 있게 읽는 '슬로 리딩'으로 사유의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들려줬다.

160 작가가 들려주는 읽기 비법: 슬로 리딩, 사유의 힘을 키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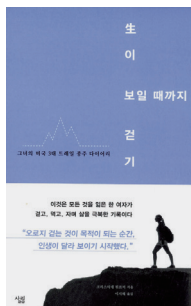
226

생이 보일 때까지 걷기

박현숙
동화작가

저. 크리스티네 튀르머 / 역. 이지혜
살림

모든 것을 잃은 저자가 미국 서부 횡단에 도전하여 4,277km를 걷는 데 성공한다. 홀로 걸으며 얻은 경험과 자기 내면의 깨달음을 담담하게 풀어낸 책이다.



227

박현숙

안녕하십니까, 학교입니다

저. 권재원

서유재

오늘의 학교와 교육 현실을 편지 쓰듯
담아낸 교육에세이. 읽고 나면 멀게
느껴졌던 학교와 교사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책이다.



가을. 秋. 09.16 161

228

박현숙

세계사로 배우는 법 이야기

저. 신현배 외

살림어린이

세계사와 관련된 열두 가지 재판
이야기로, 재판 과정을 보며 법과
논리적 사고방식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이다.



229

박현숙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등 논쟁 수업

저. 신지영 외
도서출판 북멘토

교육평준화와 인간복제,
문화상대주의에 대해 생각을 물으며
여덟 가지 쟁점으로 배우는 박진감
넘치는 어린이 토론 입문서이다.



162 작가가 들려주는 읽기 비법: 슬로 리딩, 사유의 힘을 키우다 가을. 秋. 09.16

230

박현숙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

저. 최형미
아이세움

주인공과 새엄마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가족이 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문화를 사랑한 나라, 아일랜드

영화 <원스>와 <비긴 어게인>의 나라, 아일랜드. 800년간 언어를 잃을 정도로 영국의 문화적인 침탈을 받았지만,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문화와 거침없이 대화한 아일랜드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봤다.

문화를 사랑한 나라, 아일랜드

가을. 秋. 09.21 163

231

도시의 발견

저. 정석
메디치미디어

국민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지만,
도시가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는 잘 모르고 산다. 도시가 자기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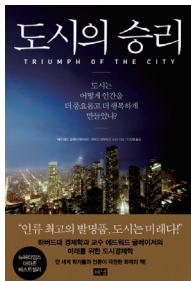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



도시의 승리

저. 에드워드 글레이저 / 역. 이진원
해냄

오랫동안 도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의 걸작이다. 도시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변수가 무엇인지 세계 주요 도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특히 도시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렸다.



시민을 위한 도시 스토리텔링

저. 김태훈
파플과워

국내 도시 문화정책의 급과옥조로 여겨지는 스토리텔링이 과연 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책. 스토리텔링의 본질은 관광객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자가 임신하면 안 되나: 불교계의 갈릴레이 강병균 교수 초청강연회

이상한 나라, 기이한 세상에서 펼쳐지는 온갖 종교적 망상을
날카로운 논리로 비판해온 강병균 교수가 ‘남녀평등’이란 주제로
유쾌한 대화를 이끌었다.

남자가 임신하면 안 되나

가을. 秋. 09.21 165

234

어느 수학자가 본 기이한 세상

저. 강병균
살림

윤회론은 엉터리 이론이고, 다윈의
진화론과 부처의 무아론은 쌍둥이
이론임을 지적했다. 수학자인 저자의
날카로운 논리와 풍자가 일품.

강병균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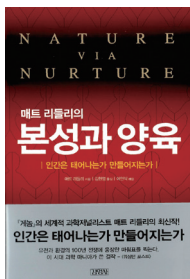
235

강병균

본성과 양육

저. 매트 리더리 / 역. 김한영 외
김영사

인간의 성품은 본성을 기본 소프트웨어
삼고 그 위에 후천적 성품을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까는 것이다. 저자는
생물학적 사회적 사례들을 들며
이 점을 설명한다.



166 남자가 임신하면 안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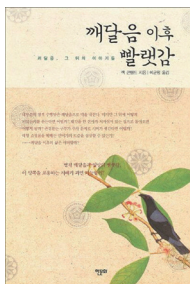
236

강병균

깨달음 이후 빨랫감

저. 잭 콘필드 / 역. 이균형
한문화

명상을 통해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은 고이 키워 꽃을 피운 난이다.
꽃을 피웠다고 소홀히 하면 말라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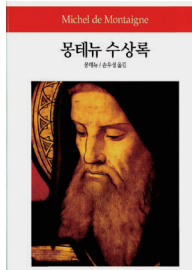
237

강병균

몽테뉴 수상록

저. 미셸 에캤 드 몽테뉴 / 역. 손우성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수필의 원조이자 자유로운 사유와
자유로운 글쓰기의 원조이다. 그가
즐거 인용하는 루크레티우스 등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시와 경구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을. 秋. 09.21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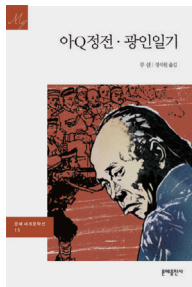
238

강병균

아Q정전 · 광인일기

저. 루쉰 / 역. 정석원
문예출판사

루쉰은 개화기의 전근대적인 중국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미개한
사회적 틀 속에서는 미개한 인간이
주조될 수밖에 없음을 미친 사람의
눈과 뇌를 통해 묘사한다.



새로운 여행의 기술: 아일랜드 캠프힐, 덴마크 스반홀름 커뮤니티 여행

장애인과 마을을 꾸려 사는 아일랜드 사람들, 국가로부터 충분한 복지나 안전을 보장받고 개인의 공간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도 모여 살기를 선택한 덴마크 사람들. 『이런 여행 뭐, 어때서』의 저자 하정이 두 커뮤니티에 체류하며 듣고 보고 겪은 이야기를 전했다.

168 새로운 여행의 기술: 아일랜드 캠프힐, 덴마크 스반홀름 커뮤니티 여행

239

문법은 아름다운 노래

저. 에릭 오르세나 / 역. 정혜용
Media2.0

말을 잃어버린 남매가 언어의 섬으로
뜻밖의 여정을 떠나게 된 이야기.
언어를 사고파는 가게, 병원에 입원한
언어 등 상상력이 과감하고 기발하다.
언어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책.

하정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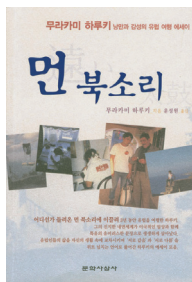
240

하정

먼 북소리

저. 무라카미 하루키 / 역. 윤성원
문학사상사

하루키의 재치 있고 섬세한 문장을 따라 30년 전의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여행한다. 두 곳의 사라진 분위기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 어린 상상을 하고, 아직 남은 특유의 매력에는 맛장구를 치게 되는 책.



가을. 秋. 10.20 169

241

하정

안경을 쓴 가을

저. 이윤희
썸프로젝트

중2병에 말기환자인 소년이 가을하며 반려견 가을이에게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한다. 엉겁결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고, 식구들과 생일파티를 하며 ‘인’생을 체험해보는 가을이의 시선이 흥미롭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과거의 시간에 갇혀 있는 박물관의 역사 유물과 고미술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법을 배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박물관은 비로소 시간을 달려와 우리에게 말을 걸어준다.

170 박물관은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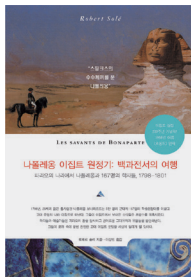
242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기

황윤
역사학자

저. 로베스 솔레 / 역. 이상빈
아테네

이집트부터 시작된 고고학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 사건임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근대적 고고학도 그 뿌리는 이집트학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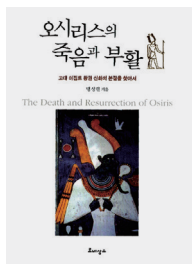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

저. 맹성렬

르네상스

한국에서 이집트 신화 관련된 책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이 책 속 신화가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인류 문화에서 신화가 가진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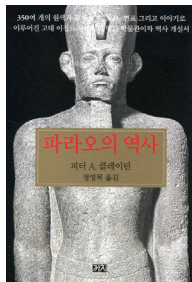


가을. 秋. 10.25 171

파라오의 역사

저. 피터 A. 클레이틴 / 역. 정영목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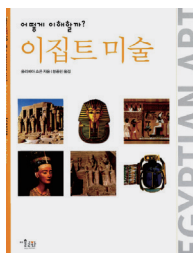
기원전 3100부터 시작되는 고대 이집트 역사를 살펴본다. 사진으로 파라오와 당시를 대표하는 유물, 유적 등을 살필 수 있다. 이 책 한 권만 있어도 이집트 역사는 꽤 아는 척이 가능할 것이다.



이집트 미술, 어떻게 이해할까?

저. 올리비아 초른 / 역. 황종민
미술문화

고대 이집트 예술의 흐름과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세세한 내용이 알차다.
국내에는 이집트 미술 관련한 책이
희박한데, 그 안타까움을 채워주는
책이다.



172 박물관은 살아있다

가을. 秋. 10.25

헌법과 인문주의

정치공동체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실현하기 위한 인문주의의 전통에 놓여 있다. 국가라는 정치공동체 속에서 자유롭게 존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주권자의 자세를 성찰했다.

헌법과 인문주의

가을. 秋. 10.27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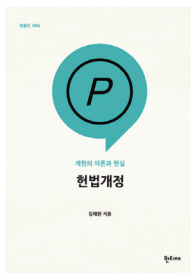
246

헌법개정

저. 김해원
한티재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이자 현재의 헌법 현실을 성찰하기 위한 책으로서도 유용하다. 보다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정치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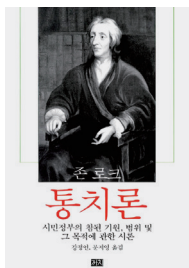
247

김해원

통치론

저. 존 로크 / 역. 강정인 외
까치

압제에 대한 저항은 근대 헌법체제를
관통하는 기본적 문제의식이면서
오늘날 헌법체제의 밑거름이기도 하다.
오늘날 헌법 현실을 성찰하기 위한 책.



174 헌법과 인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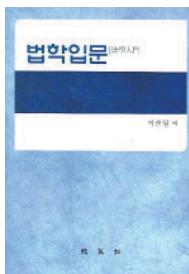
248

김해원

법학입문

저. 이준일
박영사

법은 왜 필요하고 법을 인식하는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법은
어떤 구조로 구성되는지,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의 이념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대답하는 책.



헌법의 기초

저. 전광석

집현재

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고, 나아가
헌법을 심화 학습하려는 이들에게 권한다.
헌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하기 좋고, 관련 판례도
정리되어 있어 아울러 보기 좋다.



가을. 秋. 10.27 175

한국전쟁기의 피난민과 피난민 수용소

한국전쟁기 “전선을 따라 흰옷을 입고 내려오는 피난민은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에 미 공군은 피난민에게 기관총을 난사했다. 왜 피난민은 적이 됐을까. 배제된 피난민들은 파주와 문산 일대 피난민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진 속에서 피난민의 역사를 추적했다.

176 한국전쟁기의 피난민과 피난민 수용소

250

종전에서 냉전으로

저. 강성현 외
진인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부터 미국 삼부조정위원회가 조선과 일본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군사 통치와 동아시아 활동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해방 직후 조선이 처한 독립과 분단 과정을 알 수 있다.

전갑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251

전갑생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

저. 백원담 외
진인진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종전과 냉전으로 이어진
역사와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했다.
역사, 문학, 영화, 만화 등 각 분야에서
사상 심리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가을. 秋. 10.28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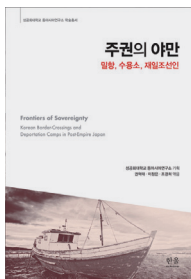
252

전갑생

주권의 야만

저. 권혁태 외
한울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의 송환, 수감,
추방 과정을 따라가며, 수용소는
어떤 의미이고 재일조선인의 위치는
어떠했는지를 각종 자료를 발굴해
소개한다.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

현직 철도 기관사이자 철도 정책 연구원, ‘철도’ 애호가인 강연자의 생생한 경험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함께 만났다. 근대의 문을 연 철도가 달려온 길 곳곳에 자리했던 역사적·시대적 쟁점, 대륙 철도 여행에서 건져 올린 역사의 이면과 시대의 민낯, 사라진 공간과 잊힌 사람들의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178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

253

신의 궤도(전 2권)

저. 배명훈
문학동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인터스텔라>가 있다면 소설에는 『신의 궤도』가 있다. 지구를 탈출해 살아남은 최후의 인류, 그들의 운명은?

박홍수
철도기관사



254

박홍수

백 사람의 십 년

저. 평지차이 / 역. 박현숙
후마니타스

혁명의 소용돌이에 끌려간 사람들. 중국
문화혁명기를 겪어낸 보통 사람들이
증언한 책. 이습우화의 중국판을 보는 듯
하다. 비극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만, 재미있다.



가을. 秋. 11.02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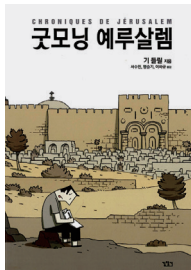
255

박홍수

굿모닝 예루살렘

저. 기 들릴 / 역. 서수민 외
이미지프레임

만화가 기 들릴의 굿모닝 시리즈는
무조건 본다. 쿨하지만 냉소적이지
않은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잘
몰랐던 세계를 향해 창을 활짝 여는
기분이다.



시대의 증언자 뿌리모 레비를 찾아서

저. 서경식 / 역. 박광현
창비

유대인 수용소의 생존자 뿌리모 레비의
흔적을 찾으며 왜 인간은 전쟁과 혐오를
만들어내는지 묻는다. 이주민, 여성,
인종, 젠더에 대한 혐오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인간이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다.



180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

가을. 秋. 11.02

무궁무진한 베트남 국수의 세계

국수 여행기 『나는 그곳에 국수를 두고 왔네』를 쓰게 된 이유,
베트남에서 만난 국수가 인생에 남긴 것, 국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즐거움 등 베트남 국수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봤다.

무궁무진한 베트남 국수의 세계

가을. 秋. 11.03 181

257

백의 그림자

저. 황정은
민음사

아직도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 의해 세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믿음과 안도감을
느끼게 해준 소설이다.

진유정
카피라이터



258

진유정

계속해보겠습니다

저. 황정은
창비

‘무의미에 가까울 정도로 덧없는 존재’
일지라도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따뜻한 이야기. 낭독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문장은 덤.



182 무궁무진한 베트남 국수의 세계

가을. 秋. 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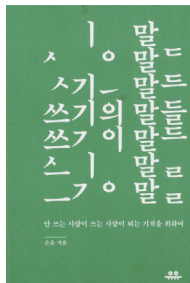
259

진유정

쓰기의 말들

저. 은유
유유

읽는 내내 나도 뭔가 다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솟았다.
이야기 첫머리마다 발췌한
여러 사람의 쓰기에 대한 말들도
어서 뭐든 쓰라고 부추기는 데
한몫한다.



시민에게 권력을: 지역의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나?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어떻게 자신의 정치문법을 만들 수 있을까?
시민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까? 시민의 문법으로 현재의 지역을 해부한다면 어떤 현실이
드러날까? 이에 관한 답을 하승우 정치학자와 함께 찾아왔다.

시민에게 권력을: 지역의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나?

가을. 秋. 11.15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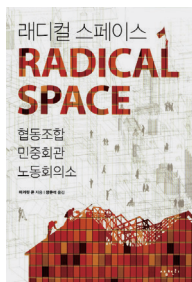
260

래디컬 스페이스

하승우
정치학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저. 마거릿 콘 / 역. 장문석
삼천리

유럽의 민중회관, 협동조합,
노동회의소가 어떻게 사람들을
전염시켰는지를 다룬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공간 속에서 몸을 부대끼며
사는 경험과 기억과 의미 부여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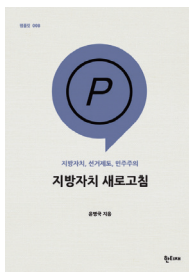
261

하승우

지방자치 새로고침

저. 윤병국
한티재

현역 의원인 저자가 지방자치의 현실을
날날이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경험과 고민이 묻어나는 책이다.



184 시민에게 권력을: 지역의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나?

가을. 秋. 11.15

262

하승우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저. 김태일
코난북스

지방재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예산이 새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대안을 모색한다.



우리 산하에 깃든 인문학

인문적 향취가 진하게 배인 우리 산하는 우리 삶의 무대이자 거울이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우리 산하에 깃든 주옥같은 인문학을 살펴봤다. 인문학자 홍인희의 안내로 명소에 얹힌 기묘한 사연, 민초들의 투박한 삶, 영웅호걸의 대서사시를 만났다.

우리 산하에 깃든 인문학

가을. 秋. 11.22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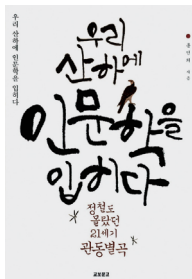
263

홍인희
인문학자

우리 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

저. 홍인희
교보문고

종래 역사와 문화, 신화의 영역에서
변방지역으로만 치부되어 온 강원도의
인문학적 콘텐츠를 새로이 발굴,
조명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지평을
넓힌다.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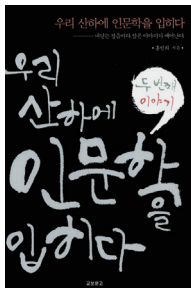
홍인희

우리 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 두 번째 이야기

저. 홍인희

교보문고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빛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각 분야의 인물을 끌어내어 그들의 발자취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인문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사고의 영역을 확산하는 책.



186 우리 산하에 깃든 인문학

가을. 秋. 11.22

265

홍인희

조선도 몰랐던 조선

저. 신봉승

청아출판사

조선 역사의 뒤편길을 산책하듯이 여러 인물과 사건의 이면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펼쳐낸 책. 딱딱하고 건조한 역사적 콘텐츠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단위로 본 세상

인류의 자연에 대한 지식의 결정체인 단위를 통해서 문명이 발전시켜온 지식과 개념을 둘러보고, 단위에 담긴 의미를 알아봤다. 자연과학에서 일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인 단위의 새로운 면을 찾아봤다.

단위로 본 세상

가을. 秋. 11.22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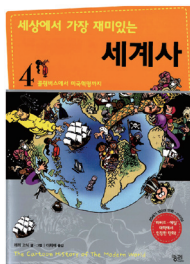
266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계사(전 5권)

저. 래리 고닉 / 역. 이희재
궁리

수학자 출신인 저자는 과학의 발전까지도 흥미진진하게 직접 그린 만화의 형식으로 서술했다. 역사가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세계사를 다룬 책 중에서는 최고의 흡인력을 가진 책 중의 하나일 듯하다.

김일선
공학박사, IT컨설턴트, 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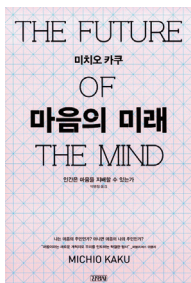
267

김일선

마음의 미래

저. 미치오 가쿠 / 역. 박병철
김영사

뇌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늘날의 현실을 바탕으로, 의식이란 무엇인지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누구나 알기 쉽게 서술한 책.



188 단위로 본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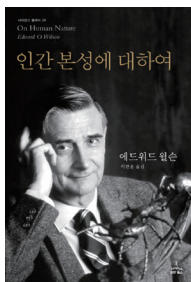
268

김일선

인간 본성에 대하여

저.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 / 역. 이한음
사이언스북스

냉철한 이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다. 사회생물학적 접근을 통해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대해 가진 오만함과 교만함을 여지없이 허물어버린다.



269

김일선

아메리칸 버티고

저. 베르나르 앙리 레비 / 역. 김병욱
황금부엉이

철학자인 저자가 1830년대 미국을
살펴본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경로를 따라
미국을 여행하며 행한 멋진 관찰과
통찰을 담았다. 미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책.



가을. 秋. 11.22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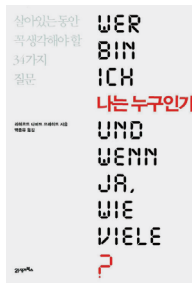
270

김일선

나는 누구인가

저.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 역. 백종유
21세기북스

인공지능의 유행과 더불어 뇌과학이
함께 주목받는 시점에서, 뇌와 자아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철학적 관점에서
명쾌하고 알기 쉬운 글로 다룬 책.



그리고 책.冊.



출판사, 책방,
문화단체 추천도서

글항아리

192 글항아리

271

쇼와 육군

저. 호사카 마사야스 / 역. 정선탐
글항아리

쇼와 천황이 재위하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제국 육군을 다룬 책으로 거대한 '병리 현상'이라고밖에 달리 분석할 길이 없던 전쟁의 술한 참상을 새롭게 조명한다.



272

파격의 고전

저. 이진경

글.항아리

엄숙한 해석 틀에 갇혀 지루하게만
여겨지던 고전소설에 ‘다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삶 속에서 고전을 찾아
읽게 만들고 세상을 달리 보는
파격의 힘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책.冊 193

273

싸울 기회

저. 엘리자베스 워런 / 역. 박산호
에세

힐러리 이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진보 정치인 엘리자베스
워런의 자서전. 어쩌면 트럼프 시대에
더 중요할 ‘거대한 악에 대항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정치’의 힘을
보여준다.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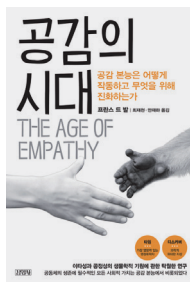
194 김영사

274

공감의 시대

저. 프란스 드 발 / 역. 최재천 외
김영사

관찰의 대가인 프란스 드 발이
동물의 공감 행동에서 찾은 우리 안의
공감 본능. 탐욕과 경쟁의 시절인 듯
보일수록 우리 안의 공감 능력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75

철학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다(전 2권)

저. 김용규

웅진지식하우스

‘철학카페’ 시리즈의 저자 김용규 선생이 철학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 1권은 혁명/이데올로기, 2권은 시간/언어 편.



그리고 책.冊 195

276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저. 이국운

김영사

헌법 제1조를 읽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한다. 작은 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대한 국민’, ‘자유’, ‘민주’, ‘공화국’에 관한 사유는 묵직하다.



꿈교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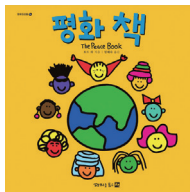
196 꿈교출판사

277

평화책

저. 토드 파 / 역. 엄혜숙
평화를품은책

일상의 작은 행동을 평화를 실천하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준다.
서로 존중하고, 안아 주며, 나누고
살 뿐 아니라 자연을 돌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평화임을
알려준다.



278

나무 도장

저. 권윤덕
평화를품은책

지옥 같은 학살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끝내 놓치고 싶지 않았던
작가의 고뇌가 녹아있는 책. 이토록
슬픈 이야기를 제주의 풍광처럼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 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희망과 바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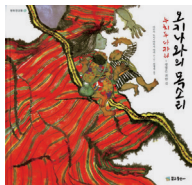
그리고 책.冊 197

279

오키나와의 목소리

저. 마루키 도시 / 역. 신명직
꿈교출판사

이 책을 쓰고 그린 마루키 도시,
마루키 이리 부부는 히로시마,
오키나와 등지를 찾아다니며 전쟁의
광기와 참상을 기록해왔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책.



280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저. 이영아
꿈교출판사

부산 아미동의 비석마을에 얹힌
이야기. 조선시대 무역하러 왔던
일본인들의 무덤과 그 위에 집을 짓고
산 한국전쟁 피난민 등 돌아가지
못하고 타국에 묻힌 이들의 아픔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8 꿈교출판사

281

빨간 기와집

저. 가와다 후미코 / 역. 오근영
꿈교출판사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가족,
굶주림, 식모살이, 도카시키 섬의
위안소 생활, 전쟁, 그리고 그 후
이야기. 배봉기 할머니의 삶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선택이
그러한 삶을 만들지 않도록
돌아보게 한다.



282 중복추천 171

이것이 인간인가

저. 프리모 레비 / 역. 이현경
돌베개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화학자인
프리모 레비는 이 체험기를 통해
극한 폭력에 노출된 인간의 존엄성과
타락의 과정을 생생하게 마주할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책.冊 199

283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저. 김동춘
사계절

저자는 연구자, 활동가, 정부 관료로서
일한 경험을 총정리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전쟁과 학살, 기억투쟁,
과거 청산의 쟁점과 의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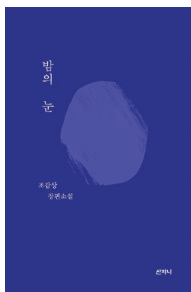


284 중복추천 144

밤의 눈

저. 조갑상
산지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과 경찰, 관할 행정책임자,
지역 실력자에 의해 소리 없이
밤의 눈이 되어 사라진 이들을
보여준다.



200 꿈교출판사

넥서스

넥서스

그리고 책.冊 201

285

작은 예수 성품 교실

저. 한기채 외
넥서스CROSS

믿음에 성품을 더하자. 십대가 맺어야 할 신앙 열매 12가지를 이야기로 들려주는 책.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작은 예수로 자라나도록 돕는다.



286

교회가 알고 싶다

저. 송태근

넥서스CROSS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원형을 찾아가는 책이다. 성서를 통해
다시 교회를 배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하게 한다.



202 넥서스

287

회복하라

저. 노진준

지혜의샘

그동안 믿어 왔던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성찰하는 책이다. 복음, 은혜, 교회,
제자도, 기도, 전도, 가치관 등
모두 7가지 본질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도어박스

도어박스

그리고 책.冊 203

288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

저. 김정래 외
남해의봄날

취업에 힘들어하는 많은 청년에게
회사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묻게 해준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준비만 하는 오늘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289

내 마음 속의 난로

저. 봄눈별
호랑이출판사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 말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첫 번째로 소개하는 책.
읽는 순간 천천히 생각하게 되고,
지나온 하루하루가 새삼 더 특별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



204 도어북스

290

그들의 등 뒤에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

저. 오사 계렌발 / 역. 강희진
우리나비

그래픽 노블이다.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방치되었던
자신을 발견하는 어른 제니의 이야기.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로 제니의 감정
하나하나가 깊숙이 다가온다.



291

우리가 아는 시간의 풍경

저. 이용원 외
월간토마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 이웃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이다.
새로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지금,
시간과 사람과 순간들이 묻어난
공간 속 삶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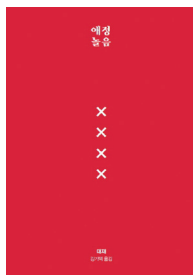
그리고 책.冊 205

292

애정놀이

저. 태재
디노마드

간질간질하지 않은 단어들로
간지럽게 만드는 시.



동녘

206 동녘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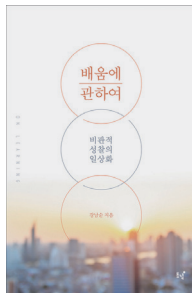
배움에 관하여

저. 강남순

동녘

배움, 비판적 성찰, 일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비판적 성찰의
일상화'를 배울 수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가치 있는 사고와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강남순 교수의
에세이이다.



294

가족의 파산

저. NHK 스페셜 제작팀

동녘

축복이 아닌 장수, 가족의 존재가
오히려 노후의 리스크가 되는 일본의
슬픈 모습을 통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시선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책.冊 207

295

대한민국 프레임 전쟁

저. 미디어오늘

동녘

뉴스의 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왜 우리가 '비판적 독해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알려준다.
언론의 프레임에 속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296

사상 최강의 철학 입문

저. 야무차 / 역. 한태준

동녘

만화처럼 술술 읽힌다. 실제 일본
학교에서 교양서로 쓰일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이 작품은
지금껏 보지 못한 최고의
철학 입문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208 동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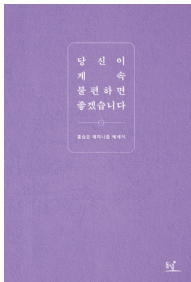
297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저. 홍승은

동녘

바야흐로 페미니즘의 시대이다.
연약함을 말하는 힘이 세상을 바꾸고,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 진짜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서 상상력과 용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또다른세상협동조합

또다른세상협동조합

그리고 책.冊 209

298

클래식 시대를 듣다

저. 정윤수
너머박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 모두 유럽이라는 정치사회문화 속에서 선택받은 음악이다. 음악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사회적인 맥락에서 음악가를 이해하고 들으면 훨씬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299

미국 대중음악

저. 래리 스타 외 / 역. 김영대 외
한울

우리가 즐기는 대중음악 대부분은
미국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의
음악은 미군 주둔지와 함께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를 살펴보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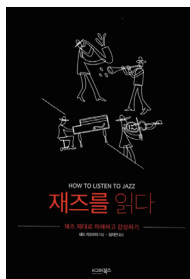
210 또다른세상협동조합

300

재즈를 읽다

저. 테드 지오이아 / 역. 임지연
시그마북스

재즈는 서양의 제국주의와
노예무역 등으로 지구촌 음악이
뒤섞이며 탄생한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음악이다. 재즈의 음악성과 또 사회성을
들여다보며 깊은 통찰에 다가간다.



미메시스

미메시스

그리고 책.冊 211

301

플랫랜드

저. 에드윈 A. 애벗 / 역. 윤태일
늘봄

2차원에 사는 ‘사각형’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사는 세계와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소개하는 판타지 소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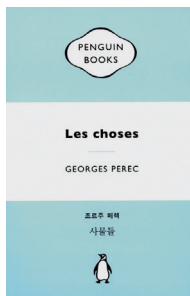


302

사물들

저. 조르주 페렉 / 역. 김명숙
펭귄클래식코리아

1960년대 프랑스에서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체감하는 청년들의 삶을 그린
소설.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소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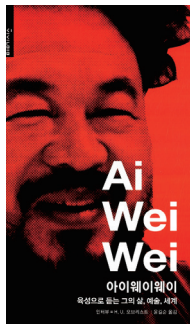
212 미메시스

303

아이웨이웨이

저. 한스 올리히 오브리스트 / 역. 윤길순
미메시스

동시대의 중요한 큐레이터와 작가가
나눈 대화에서 예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미스터버티고

미스터버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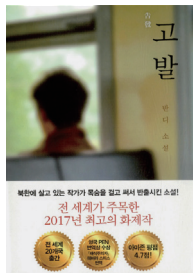
그리고 책.冊 213

304

고발

저. 반디
다산책방

북한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작가가
1990년대 북한을 배경으로 쓴 단편을
 묶은 소설집. 중국을 오가는 지인을
통해 세상으로 보낸 원고가 해외에
알려지며 20개국 18개 언어권에
판권이 팔리며 화제가 됐다.



305

디어 랄프 로텐

저. 손보미

문학동네

미스터버티고 책방주인은 신간도
열심히 읽고, 따지도 꾸준히 만든다는
걸 알리려는 알뜰한 의도로 소개하는
소설. 불순한 의도와는 달리, 다 읽고
나면 참 순수하고 따뜻한 이야기임을
느끼게 된다.



214 미스터버티고

306

오 봉 로망

저. 로랑스 코세 / 역. 이세진

예담

서울도 아닌 경기도 일산의
인적 드문 주택가에 20평 남짓한
작은 책방을 연 뒤로
생각보다 방문객이 적어
의기소침하고 있던 2015년 가을,
많은 위안을 준 소설.



307

자기 개발의 정석

저. 임성순

민음사

읽으면서 시종일관 낄낄거릴 정도로 재미있다. 책방을 찾는 40대 이상 남성에게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미없다는 불만을 듣지 않은 책.



그리고 책.冊 215

308

시체 읽는 남자

저. 안토니오 가리도 / 역. 송병선

레드스톤

스페인 공대 교수가 중국 송나라 시대에 법의학자인 '세원집록'을 저술한 송자의 인생을 재구성한 픽션. 어색하고 이상한 조합인데, 600쪽 가까이 되는 분량을 부자가 된 기분으로 재미나게 읽을 수 있다.



사계절출판사

216 사계절출판사

309

칠성이

저. 황선미
사계절출판사

황선미 작가의 목격한 서사를
맛볼 수 있는 그림책. 인생의 뒤영킵
가운데서도 힘껏 자기 몫을 짊어지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통속의 맛이 쓰다.
연필로 그린 소싸움 그림이 일품이다.



310

간질간질

저, 서현
사계절출판사

어느 날 머리카락이 떨어져
또 다른 내가 된다. 나와 나들은
으쓱으쓱 흔들흔들 춤을 추며
나아간다. ‘야호! 오예!’를 외치면
기분까지 좋아진다. 해피 바이러스가
퐁퐁 솟는 그림책.



그리고 책.冊 217

311

지렁이빵

저, 노석미
사계절출판사

심심한데 편안하고, 헛헛한데 꼭 차
있다. 보다 보면 ‘아 좋구나, 좋네,
좋다, 좋아.’하게 된다. 숨은 위트를
발견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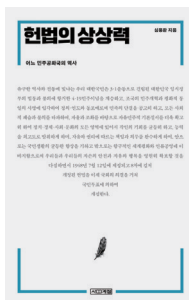


312

헌법의 상상력

저. 심용환
사계절출판사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헌법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위에
대한민국 현대사를 다시 쓴
우리 시대의 필독서.



218 사계절출판사

313

청춘의 가격

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사계절출판사

“이것은 청년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생활과 생존을 생생하게 기록한
보고서이자, 갈 곳을 잃은 한국 사회의
민낯을 까발린 신랄한 고발장.



산지니

산지니

그리고 책.冊 219

314

빼딱한 책읽기

저. 안건모

산지니

안건모 선생님의 솔직한 서평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한다.

무더진 우리의 감각을 버리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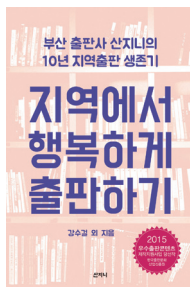


315

지역에서 행복하게 출판하기

저. 강수걸 외
산지니

부산 지역 출판사 산지니의 좌충우돌,
고군분투 출판 이야기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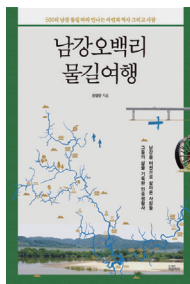
220 산지니

316

남강오백리 물길여행

저. 권영란
피플파워

남강이 품은 전설과 풍경을 통해 민중
생활사를 만난다. 제1회 한국지역출판
대상 천인독자상 수상작.



317

동네도서관이 세상을 바꾼다

저. 이소이 요시미쓰 / 역. 홍성민
펼복스

11평 작은 방에서 시작한
'동네도서관 운동'으로 일본 전역에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책.冊 221

살림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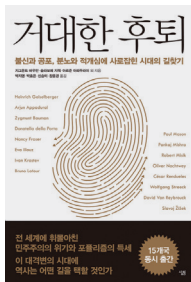
222 살림출판사

318

거대한 후퇴

저. 지그문트 바우만 외 / 역. 박지영 외
살림출판사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한 권위주의
포퓰리즘의 득세와 그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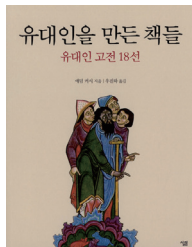


319

유대인을 만든 책들

저. 애덤 커시 / 역. 우진하
살림출판사

유대인만큼 책을 가까이한 민족도 드물다. 디아스포라의 역사 가운데도 그 전통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그들이 읽은 책에서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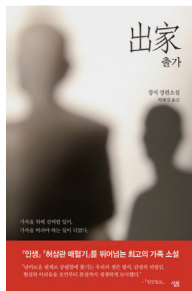
그리고 책.冊 223

320

출가

저. 장지 / 역. 차혜정
살림출판사

가족애와 자아. 보편적인 ‘나’ 광취안이 두 가치를 두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인의 삶에서 사라져가지만 꼭 필요한 것을 성찰하게 만든다.



321

살아가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

저. 구로사와 이즈키 / 역. 박진희
살림출판사

저자는 광고 크리에이터로 성공을
쫓다 과부화로 우울증을 앓은 뒤
『도덕경』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이 책을 통해 『도덕경』을
일상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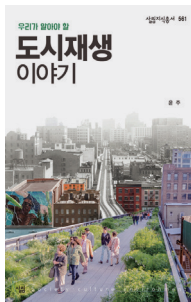
224 살림출판사

322

도시재생 이야기

저. 윤주
살림출판사

이 책은 진정한 도시 재생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여 밝히고, 역사성·
현재성·예술성을 잘 살린
각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들어
그 방향을 제시한다.



서해문집

서해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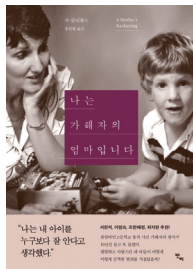
그리고 책.冊 225

323 중복추천 377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저. 수 클리블드 / 역. 홍한별
번비

세상을 뒤흔든 총기사고 가해자
어머니의 글.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자녀교육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을까? 아니, 단지
자녀교육만의 문제였을까?



324

언플래트닝, 생각의 형태

저. 닉 수재니스 / 역. 배충효
책세상

이런 종류의 책은 상상도 못 해봤다.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책이다. ‘언플래트닝’은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를
시도하자는 제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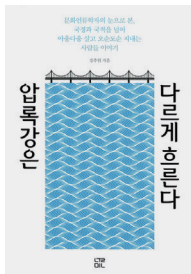
226 서해문집

325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저. 강주원
눌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접경도시 단동의 모습을 통해
통일 후 진정한 국제화, 국제교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만든다.



326

재난을 묻다

저.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서해문집

세월호와 같은 재난 참사를
방지하려면 그 원인에 대한 접근과
분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슴 아픈 과거의 재난 참사들을
다시 끄집어냈다. 아프지만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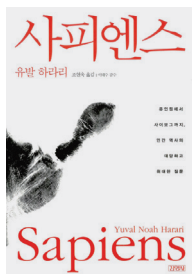
그리고 책.冊 227

327 중복추천 68, 127

사피엔스

저. 유발 하라리 / 역. 조현욱
김영사

E. 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고,
유발 하라리는 그것을 책으로
보여주었다.



소제창작촌

228 소제창작촌

328

우리들의 하느님

저. 권정생

녹색평론사

아동문학가이지만, 그의 산문을 보면
어른이 읽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나 자신임을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알게 된다.



329

안녕 주정뱅이

저. 권여선

창비

권여선 선생님의 단편소설 작품집.

다른 말이 필요할까?



그리고 책.冊 229

330

사생활의 천재들

저. 정혜윤

봄아필

치키치키차카차카쵸코쵸코쵸.
8명의 사생활의 천재들이 외우는
삶의 주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도 우리만의 주문을 외울 수
있기를!



도서출판 아시아

230 도서출판 아시아

331

고은 깊은 곳

저. 고은, 김형수
도서출판 아시아

노벨문학상을 국가의 위상에
연계하려다 보니 오히려 고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설적 상황에서,
세계가 알아야 할 우리도 몰랐던
고은의 진면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



332

수의사 헤리엇의 개 이야기

저. 제임스 헤리엇 / 역. 김석희
도서출판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린
현대의 고전 '수의사 헤리엇의 이야기'
시리즈. 그중 훈훈하고 놀라운
개 이야기들만 따로 엮어낸 에센스.



그리고 책.冊 231

333

물결의 비밀

저. 바오 닌 외 / 역. 구수정 외
도서출판 아시아

아시아 단편 소설 중 최고의 작품을
모은 선집. 아시아 문학 지도를
복각하는 귀중한 작업의 일환이다.



334

보통 사람의 글쓰기

저. 이준기
도서출판 아시아

보통 사람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보통 사람인 지은이와 그린이가
몸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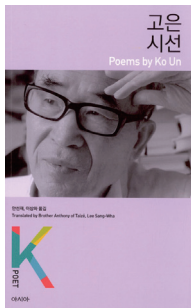
232 도서출판 아시아

335

고은 시선

저. 고은 / 역. 안선재 외
도서출판 아시아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의 시 20편을
영역해 한글과 함께 신고 해설을
첨부하는 작업의 일환 'K-포엣 시리즈',
그 첫 번째로 고은 시인의 시를
소개한다.



안그래픽스

안그래픽스

그리고 책.冊 233

336

간송미술 36: 회화

저. 백인산
컬처그래퍼

백인산 연구실장이 읽어주는 우리
옛 그림 베스트 36. 간송미술관에서
24년 동안 미술 연구에 매진한 저자의
탁월한 안목과 아름답고 재미있는
그림 설명으로 진정한 옛 그림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37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저. 승효상

컬처그라퍼

파주출판도시 코디네이터로
새로운 도시 건설을 지휘하여
미국건축가협회로부터 2002년 명예
펠로우 자격을 받은 저자. 우리가
잃어버린 건축과 도시의 가치,
삶의 진실함을 일깨우는 비움과
고독을 말한다.



234 안그라픽스

유어왓츄리드

유어왓츄리드

그리고 책.冊 235

338

3시의 나

저. 아사오 하루밍 / 역. 이수미
북노마드

매일의 3시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다.
그날의 기분과 일상을 담백하게
표현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나의 일기장을 훑쳐보는 듯한 떨림도
있지만, 공감할 수 있어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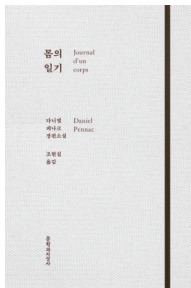


339

몸의 일기

저. 다니엘 페나크 / 역. 조현실
문학과지성사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몸’을 알기
위해서 13세부터 79세까지 적어간
몸의 일기를 읽으면, 몸과 정신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나’를 이루고
있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236 유어왓츄리드

340

헬프 (전 2권)

저. 캐스린 스토킷 / 역. 정연희
문학동네

피부색을 기준으로 너와 나를
다르다고 구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
3명의 여자 이야기. ‘인종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고 통쾌하게
전개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것이아름답다

그리고 책.冊 237

341

도시에서, 잡초

저. 이나가키 히데히로 / 역. 엄혜은
디자인하우스

잡초를 깊게 관찰해 인간의 삶과
연결 지은 이야기가 다채롭다.
멋대로 대상화하지 않고 제대로
알려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342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저. E. F. 슈마허 / 역. 이상호

문예출판사

거대하고 극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대안을 알리는
길잡이 같은 책. 작은 것의 아름다움에
눈뜨는 내밀한 개혁이 사회의 본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다고 말한다.



238 작은것이아름답다

343

다함께 살리는 건강처방전

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의사 34인

작은것이아름답다

‘마을주치의’로 살아가는 의사들의
경험과 고민을 담았다. 건강한 개인,
건강한 공동체와 세상에 대한 생각을
살필 수 있다.



청아출판사

청아출판사

그리고 책.冊 239

344

6일 전쟁 50년의 점령

저. 아론 브레그먼 / 역. 정회성
니케북스

중동 테러리즘의 불씨가 된
6일 전쟁을 잘 보여주는 책.
이스라엘군 장교 출신 역사가에 의해
불편한 진실이 기록된 것이 특징이다.



345

빅 히스토리

저. 신시아 브라운 / 역. 이근영
프레시안북

빅뱅에서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를 다룬 책. 과학과 역사라는 측면에서 인류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교양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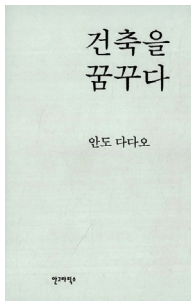
240 청아출판사

346

건축을 꿈꾸다

저. 안도 다다오 / 역. 이규원
안그라픽스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안내하는 건축기행 에세이. 건축물에 담긴 이야기와 안도 다다오의 해석이 돋보이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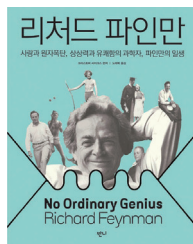


347

리처드 파인만

저. 크리스토퍼 사이크스 / 역. 노태복
만니

상상력과 유쾌함이 풍부한 과학자
파인만의 일생을 볼 수 있는 책.
130여 장의 사진과 파인만의
과학노트 등이 그를 알게 하는
단서가 된다.



그리고 책.冊 241

348

빅뱅에서 인간까지

저. 마그나 히스토리야 연구회
청아출판사

빅뱅에서 인간의 문명까지 다룬
과학사 책으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필수교양 강좌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과학사의 거대한 흐름을
이 한 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349

마흔, 시로 답하다

저. 이해경

니케박스

언어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최후의 보루인 시. 시를 읽고, 외우고,
필사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짧지만 강력한 시
한 편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242 청아출판사

350

박상구의 좋은 점 찾기

저. 신채연

노란돼지

한없이 자상하고 친절함 '삼촌'을
동경하는 주인공에겐 같은 반,
같은 나이의 개구쟁이 삼촌 박상구가
있다. 창피하다고 생각한 삼촌의
좋은 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소소한
재미와 감동을 준다.



최인아책방

최인아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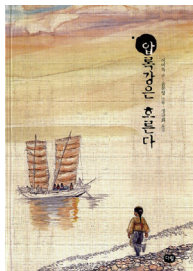
그리고 책.冊 243

351

압록강은 흐른다

저. 이미륵
다림

식민지 백성으로 살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인생과 목숨까지 바쳤던
우리 앞 세대의 수고를 돌아보는
동시에 담백하고 절제된 문장의
아름다움과 만나보기를 권하며
추천한다.



352

마티네의 끝에서

저. 히라노 게이치로 / 역. 양윤옥
아르테

생업에 몰두하느라 밀어두었던
본질적인 질문과 기어이 맞닥뜨리게
되는 나이가 바로 '마흔' 인 것 같다.
이 책이 각자의 '마흔'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244 최인아책방

353

나를 지켜낸다는 것

저. 광차오후이 / 역. 박찬철
위즈덤하우스

자신을 지키며 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유교는 큰 도움이 된다.
유교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특히 마음을 지키며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지혜인 것 같다.



페이지터너

페이지터너

그리고 책.冊 245

354

음악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저. 니콜라스 쿡 / 역. 장호연
곰출판

여러 종류의 음악을 지도 위에 펼치듯
근본적인 음악의 지형도를 그려주는
책. 광고 음악부터 베토벤까지
분량은 짧지만, 포괄적인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355

홍대 앞 새벽 세 시

저. 성기완

사문난적

시인이자 번역가, 음악가로 활동하는
성기완 작가의 인디음악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엮은 책이다.



246 페이지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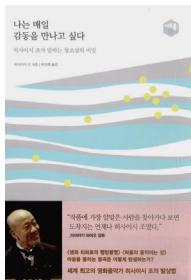
356

나는 매일 감동을 만나고 싶다

저. 히사이시 조 / 역. 이선희

샘터사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음악을 만들어 온
히사이시 조의 음악 세계를 담은
책이다. 그가 말하는 창조성의 비밀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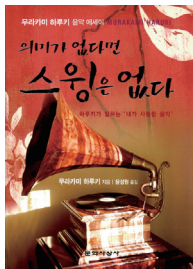


357

의미가 없다면 스윙은 없다

저. 무라카미 하루키 / 역. 윤성원
문학사상사

무라카미 하루키가 추천하는
‘내가 사랑한 음악’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적극 추천. 슈베르트에서
비치 보이즈까지 자신을 매료시켜 온
11명의 뮤지션을 중심으로 그들의
뛰어난 음악세계와 자신의 음악관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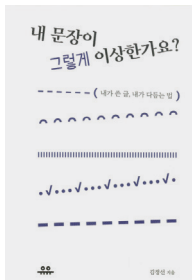
그리고 책.冊 247

358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저. 김정선
유유

20년 교정 숙수가 전하는 문장 레시피.
글쓰기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흔하게 오류에 빠지는
부분을 잘 짚어준다.



359

내 친구 쇼팽

저. 프란츠 리스트 / 역. 이세진
포노

피아니스트 쇼팽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쇼팽에 전하는 책인 『내 친구 쇼팽』.
리스트가 설명하는 쇼팽은 어떻게
알아보는 재미가 있다.



248 페이지터너

한길문고

한길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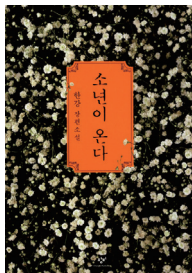
그리고 책.冊 249

360 중북추천 181, 220

소년이 온다

저. 한강
창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생히 다룬 소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맨부커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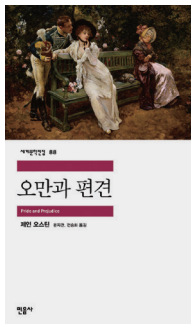


361

오만과 편견

저. 제인 오스틴 / 역. 윤지관 외
민음사

평생 독신으로 산 제인 오스틴의
첫 작품으로, 따뜻한 감성을 선사하는
책이다.



250 한길문고

362

문재인의 운명

저. 문재인
북팔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 참여정부 시절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글.
문재인 대통령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한울엠플러스

한울엠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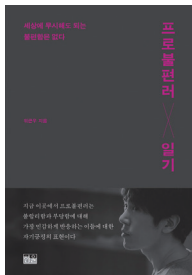
그리고 책.冊 251

363

프로불편러 일기

저. 위근우
한울

이리저리 치일지라도 제대로 부당함에
도전하며 치열하게 만인의 통로를
만드는 ‘프로불편러’의 섬세한 생각을
85개의 글에 담았다.



364

그래도 우리는 노래한다

저. 정유하

한울

사노라면, 임을 위한 행진곡, 광야에서,
늙은 군인의 노래 등. 민주화운동의
동력이 되어준 노래에 얹힌 이야기를
악보와 함께 담아냈다.



252 한울애플러스

365

꽃 같던 청춘, 회문산 능선 따라 흘뿌려지다

저. 정찬대

한울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그 누구와도 화해하지 못했다.
민간인 학살도 그중 하나다.
기자 정찬대가 호남·제주를 취재해
그날의 참상을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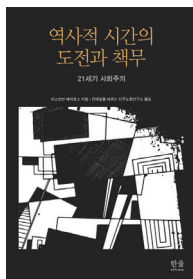


366

역사적 시간의 도전과 책무

저. 이스트번 메자로스 /
역.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한울

자본주의가 최선인가?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사회적 위기가
폭발하는 오늘날 제기되는 질문에
답하며, 인간 해방을 위해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책.冊 253

367

의학사 노트

저. 예병일
한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부터
맞춤의학의 시대를 연 분자의학의
발전 과정까지 의학의 역사를 저자
특유의 재담으로 생동감 넘치게
풀어냈다.



한티재

254 한티재

368

법정에 선 문학

저. 채형복
한티재

국가권력의 횡포 탓에 필화를
겪어야 했던 한국 현대문학 작품들.
그 법정 공방을 통해 문학의 자유와
작가 정신, '시적 정의'를 성찰해볼 수
있다.



369

강을 버린 세계에서 살아가기

저. 황규관

한티재

삶과 문명, 노동과 문학에 대한 시인의 사유를 경청하다 보면, 문학과 시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작가는 세계 속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책.冊 255

370

성주가 평화다

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외

한티재

사드 배치 반대 성주촛불투쟁 현장 낭송시집. 이 시대에 문학이 민중과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현장 속에서 시가 생명력을 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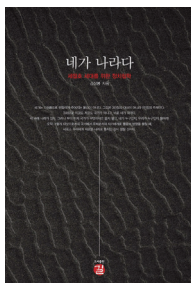


371

네가 나라다

저. 김상봉
도서출판 길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철학을 모색해온 저자가 '세월호 세대'라 불리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그간의 논의를 대담 형식으로 전개했다.



256 한티재

372

삼성 독재

저. 이종보
빨간소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 '삼성권력'의 역사와 메커니즘을 치밀하면서도 쉽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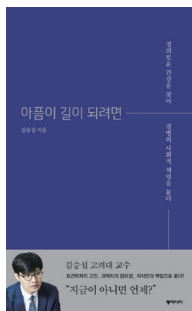


373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저. 김승섭
동아시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재 조건과 고통을, ‘정의로운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사회개혁과 진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책.冊 257

374 중북추천 382

헌법의 약속

저. 에드윈 캐머런 / 역. 김지혜
후마니타스

성소수자의 삶과 법적, 정치적 권리를 ‘헌법’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우리 사회 인권과 평등에 관한 인식과 논의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번역물.



375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저. 카트리네 마르살 / 역. 김희정
부키

‘경제학’이라는 이름의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 고용 불안정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유쾌하고
발랄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좋은 대중서.



행복한책방

행복한책방

그리고 책.冊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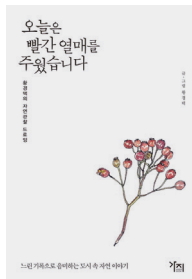
376

오늘은 빨간 열매를 주었습니다

저. 황경택

도서출판 가지

걸어야 볼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봐야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 마음을 내어 저자를
따라가다 보니 연필 들고 그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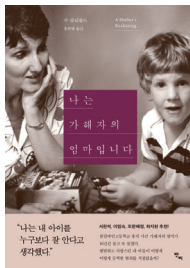


377 중복추천 323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저. 수 클리블드 / 역. 홍한별
반비

‘인간’이라는 존재와 ‘엄마’라는 존재의 불가해함을, ‘깊은 절망’과 ‘고통스러운 희망’을 동시에 느낀 책. ‘연대’를 이야기하려면 세상의 바닥을 보아야 한다.



260 행복한책방

378

당신 인생의 이야기

저. 테드 창 / 역. 김상훈
엘리

과학적 사유가 철학을 만나는 어느 지점, 짜릿하다. 인간의 고등한 뇌에 절망을 느낄 때가 많지만 테드 창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면 그 자체로 그저 즐기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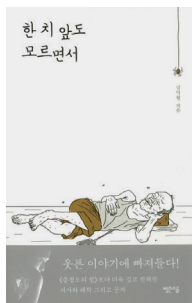
379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저. 남덕현

빨간소금

풀어놔다 하면 저마다 드라마 같고
소설 같은, 굵이굵이 파란만장한
시골 노인들의 웃픈 인생사. 배꼽
빠지게 웃다가 콧날 시큰해지다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사에 대한
눈이 뜨인다.



그리고 책.冊 261

후마니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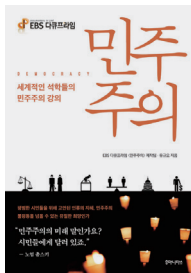
262 후마니타스

380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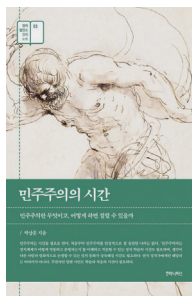
저.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제작팀 외
후마니타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5부작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



민주주의의 시간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 사회 대부분이
믿거나 믿고 싶거나 의심하지 않는
통념에 도전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는 책.



헌법의 약속

게이, HIV 감염인이자 현재 남아공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저자가 남아공 민주화 과정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며 당당한 소수자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책.



383

지연된 정의

저. 박상규 외
후마니타스

민주화 이후 30여 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공권력과 법이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돌아본다.



264 후마니타스

384

그런 여자는 없다

저. 게릴라걸스 / 역. 우효경
후마니타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대중매체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며
어떻게 여자들의 삶을 규정지어 왔는지,
그 역사와 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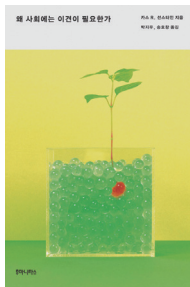


385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저. 카스 R. 섀스타인 / 역. 박지우 외
휴머니타스

이견을 보호하는 것이 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견과 갈등을
민주주의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견과 갈등 속에서도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기에
좋은 책.



그리고 책.冊 265

386

웅크린 말들

저. 이문영
휴머니타스

낮은 계급의 범주에도 속하지 못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존재의 절박한
목소리, 시선, 표정, 몸짓을 채록해
지금 우리 사회의 풍경으로
다시 소환했다.



2017 출판도시 인문학당



강연 모아보기

책방거리 프로그램

출판사 및 단체와 함께하는 강연 2017년 3월~6월

글항아리

우리가 사랑한 나무

강판권 /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5.22(월) 19:00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65)

미술의 탄생과 죽음-현대미술의 전개

조주연 / 미술이론가
5.24(수) 19:00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너무 과학적인 순간들

이종필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연구교수
6.9(금) 19:00
북파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

가장 식물다운 아름다움

이소영 / 식물세밀화가
6.21(수) 11:00
서울숲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

김영사

음악사

홍승찬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6.12(월) 18:30
김영사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

현대음악의 이해

이건용 / 작곡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역임
6.19(월) 18:30
김영사

꿈교출판사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와 여성 인권-

제노사이드에서 살아남은 소녀
오로라 마르디가니아의 이야기

이명아 / 번역가
4.24(월) 11:00
평화롭품은집 평화도서관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로 389번길 42-19)

[제노사이드 특강] 제노사이드(인종학살)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최호근 /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6.6(화) 10:30

평화롭품은집 평화도서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파주 고양

지역을 중심으로
신기철 /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 소장
6.6(화) 14:00
평화롭품은집 평화도서관

돌베개

시인의 울음-시로 읽는 중국

안희진 / 단국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1강: 남북 문화로 이해하는 중국

4.13(목) 19:30
청운문학도서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6길 40)

2강: 중국어로 읽는 소리의 시

4.20(목) 19:30
청운문학도서관

세월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야기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김탁환 / 작가
4.19(수) 19:30
경기서적 호매실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12 이수프라자 2층)

4.25(화) 19:30
한양문고 주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88 태영프라자)

또다른세상협동조합

클래식, 시대를 듣다

정윤수 /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1강: 바로크, 조화로운 세계를 향한 꿈

4.4(화) 19:00

청아인문아카데미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41)

2강: 혁명의 음악, 음악의 혁명-베토벤

4.11(화) 19:00

청아인문아카데미

명필름

디자인과 영화-그냥 좋은 장면은 없다

신연우 / 아트라이터

영화<레옹>-김이

3.25(토) 13:00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카페
(경기도 파주시 화동길 530-20)

영화<잉글리쉬 페이션트>-색상

4.22(토) 13:00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카페

영화<그랑 블루>-방향

5.27(토) 13:00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카페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아티스트 토크 제어란: 그리기에 관하여

제어란 / 아티스트

3.26(일) 15:00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53)

건축: 잃어버린 시간들

박창현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5.6(토) 15:00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아티스트 토크 이재삼

이재삼 / 아티스트

6.24(토) 15:00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사계절출판사

마녀사냥의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

이경덕 / 문화인류학 박사

4.6(목) 19:00

이음책방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4길
12-1)

유행한 인문학자에게 듣는 즐거운 장자의 사상

김경윤 / 자유청소년도서관 관장

4.13(목) 19:00

정독도서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길 48)

그린다는 것

노석미 / 파인 아티스트, 작가

4.20(목) 19:30

마이북 서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4길41)

열일곱, 인생을 말하다

안광복 / 서울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

5.11(목) 19:00

정독도서관

삶 & 글쓰기

황선미 / 동화 작가

6.12(월) 19:00

정독도서관

산지니

세상의 모든 쓰임과 함께-소설 『쓰임』으로 보는 다문화 사회와 이방인

서성란 / 소설가

3.31(금) 19:30

이음책방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4길 12-1)

**우리 마음속 초록 숨소리·자연스러운
사람 되기**

박두규 / 시인
4.29(토) 16:00
순천호아트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신월큰길7)

**바다, 도시 그리고 부산-해항도시 부산과
해양문학**

구모룡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6.3(토) 14:00
부산문화콘텐츠포럼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안건모 / <작은책> 대표
6.23(금) 19:00
부산문화콘텐츠포럼

서해문집

270 우주 덕후의 별별생각·인간, 작은 우주

지웅배 / 연세대학교 천문대학원,
은하진화연구센터 연구원
4.27(목) 19:00
비플러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2길
16-12)

소제창작촌

**기억의 공간 『소제동』, 책으로 돌아오다-
이야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마을**

김진섭 / 전북 완주군 삼례 책마을
책공방북아트센터 대표
5.20(토) 15:00
소제동 시향방 어리연 (대전시 동구
시울1길 1번지)

도시재생을 디자인하다

잃어버린 낙원, 소제동을 상상하다
나태홍 / 도시재생 디자인 기획자,
사회적 기업 안테나 공동대표
7.22(토) 15:00
소제동 시향방 어리연

안그라픽스

**사임당의 풀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조선 유일의 모녀 화가, 사임당과 매창의 삶
과 예술**

탁현규 / 간송미술관 연구원

4.14(금) 19:30
교하도서관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256)

5.20(토) 14:00
강릉시오죽현/시립박물관 (강원도 강릉시
올곡로 3139번길 24)

꿈꾸는 거문고-글과 그림으로 풀어본

조선 선비 결의 우리 음악

송해진 /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
대학원 교수
5.17(수) 19:00
북파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

청아출판사

**이슬람 최고의 전문가 이희수 교수가
들려주는 이슬람 이야기 <이슬람 학교>
이희수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강: 이슬람의 탄생
4.7(금) 19:00
청아인문아카데미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41)

2강: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4.14(금) 19:00
청아인문아카데미

3강: 찬란한 이슬람 문명

4.21(금) 19:00
청아인문아카데미

4강: 이슬람 극단주의의 기원

4.28(금) 19:00
청아인문아카데미

출판도시활판인쇄박물관

독립신문으로 읽는 우리문장과 인쇄술

김상웅 / 제7대 독립기념관 관장

1강: [독립신문]의 창간 배경과 주역들

4.7(금) 12:00

활판인쇄박물관 체험학교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층)

김남일 / 소설가

2강: [독립신문]의 시대와 아시아 민족 운동

4.21(금) 12:00

활판인쇄박물관 체험학교

채지원 / 시인, 수서중학교 교사

3강: 어린이와 함께 읽는 [독립신문]

5.5(금) 12:00

활판인쇄박물관 체험학교

오광수 / 경향신문 기획위원

4강: [독립신문]의 조판형식과 순 한글 문장

5.7(일) 12:00

활판인쇄박물관 체험학교

방현석 / 소설가

5강: [독립신문] 시대의 인쇄 장비와 기술

5.22(월) 13:00

활판인쇄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45)

한길사

한나 아렌트 특강

김선욱 /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1강: 악의 평범성과 인간의 사유

3.23(목) 19:30

순화동천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9길 28

덕수궁 롯데캐슬)

2강: 유대인 아렌트와 인간 아렌트

3.30(목) 19:30

순화동천

이진우 /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

3강: 절대악을 경험하고 인간의 조건을

고민하다

4.6(목) 19:30

순화동천

홍원표 /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

4강: 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위하여

4.13(목) 19:30

순화동천

김비환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5강: 한나 아렌트와 현대 정치사상

4.20(목) 19:30

순화동천

한울엠플러스

프로블럼러 대담: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불
편함은 없다

위근우 / 웹매거진 <아이즈> 취재팀장

최서윤 / <월간 잉어> 편집장

4.5(수) 19:00

비플러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2길 16-12)

271

한티제

詩에 이르는 길

김수상 / 시인, 대구경북작가회의 사무국장

1강: 위기지학에서 위인지학으로

(글쓰기의 자세와 윤리)

4.9(일) 14:00

해피아교육연구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로 3209)

2강: 사물 보기, 사물 되기 (직관에서

진리까지) 반성이 힘이다 (고통 속으로)

4.23(일) 14:00

해피아교육연구소

3강: 세상 편을 들어라 (병의 치유와 세상과

의 화해) 마침내, 시와 진선미(眞善美)

5.14(일) 14:00

해피아교육연구소

효형출판

일본 열도에 핀 벚꽃의 의미-우에노와 창경궁을 중심으로

송영만 / 효형출판 대표

4.15(토) 14:00

효형출판 1층 북카페는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25-11)

슬프도록 아름다운 아육의 땅, 아마구치

송영만 / 효형출판 대표

4.22(토) 14:00

효형출판 1층 북카페는

메트로폴리스 파리와 서울의 숨은 이야기

최민아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4.29(토) 14:00

효형출판 1층 북카페는

후마니타스

민주주의의 재발견

박상훈 / 정치발전소 학교장

1강 : 민주주의는 어떤 가치와 규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4.18(화) 19:30

정치발전소 강의실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 황해빌딩 3층)

2강 : 민주주의 vs 민주주의

4.25(화) 19:30

정치발전소 강의실

책방과 함께하는 강연

2017년 3월~6월

달팽이 책방

생존의 글쓰기

은유 / 작가

4.16(일) 13:00

달팽이 책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길 10번길 32)

우리말 살려 쓰기

최종규 / 작가, 도서관학교 숲노래 대표

4.29(토) 16:00

달팽이 책방

기록하는 글쓰기

안정희 / 작가, 북큐레이터

5.13(토) 17:00

달팽이 책방

더플락

일상의 확장, 무한의 상상

김희은, 김대일 / 키미앤일이 대표

5.13(토) 19:00

더플락 (대구시 중구 북성로1가 21-16)

연애하지 않을 자유: '하지 않음'의 정치학

이진송 / <계간 홀로> 발행인

5.27(토) 19:00

더플락

도어북스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박종덕 / 시각예술단체 gimmicks대표

4.1(토) 14:00

도어북스 (대전시 중구 테미로 48)

라이너노트

영화음악을 이야기하다

성기완 / 작가, 칼럼니스트

1강: 영화음악의 레시피
4.8(토) 17:00
음악·서점 라이너노트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9길 4, 1층)

2강: 영화음악의 거장들
4.14(금) 20:00
음악·서점 라이너노트

미스터버티고

김남우의 회람 서점시 읽기
김남우 / 정암학당 연구원, 번역가
5.24(수) 20:00
미스터버티고책방 (경기도 일산동구
강송로73번길 8-2)

안희진의 한시 읽기
안희진 / 단국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6.9(금) 19:30
미스터버티고책방

발전소책방

생활 속 숨어 있는 과학을 만나는 시간
[사이언스 빌리지]
김병민 / 과학 칼럼니스트
4.22(토) 19:00
커피발전소 (경기도 파주시 꽃창포길16)

마을에서 책으로 만나는 사회적 경제
조형근 /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5.26(금) 20:00
커피발전소

알모책방

이금이 작가와 원종찬 평론가의 대담: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로 보는
역사소설의 현재
이금이 / 작가
원종찬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3.20(월) 10:00
알모책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6번길 7-7)

『은하철도의 밤』을 중심으로 본 미야자와
겐지의 삶과 작품 세계
박종진 / 번역가
4.24(월) 10:00
알모책방

근대 동시 산책: 윤석중
김제곤 / 교사
6.30(금) 18:30
알모책방

우리글방

미래를 앞당기는 시읽기
노혜경 / 시인, 한국해양대학교 외래교수
4.11(화) 19:00
우리글방 (부산시 중구 대청로 63)

도심 속 골목 책방, 그 방향을 묻다
정달식 / 기자, 부산일보 편집국
문화부 문화부장
4.28(금) 19:00
우리글방

이해인 수녀님과 함께하는 시와 삶의 이야기
이해인 / 시인, 수녀
5.24(수) 18:30
우리글방

유어왓츄리드

철학, 좋아하세요?
고병권 / 저자
6.23(금) 19:00
서점 유어왓츄리드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195-1)

최인아책방

모색시리즈
최진석 /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4.25(화) 20:00
최인아책방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521, 4층)

쟁이의 생각법

이용찬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5.18(목) 20:00

최인아책방

한길문고

참 교육 이야기

김용택 / 시인

4.11(화) 10:30

한길문고 문화 공간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38 나운프라자 2층)

역사강좌(송내관의 재미있는 궁궐이야기)

송용진 / 작가

5.18(목) 16:30

한길문고 문화 공간

어린이 인문학 강좌

노경실 / 소설가

6.20(화) 16:30

한길문고 문화 공간

행복한책방

274

인문학으로 '나'를 세우다-인문학을 통해

꾸꾸는 '새로운 삶'

김경집 / 인문학자

4.5(수) 19:30

행복한책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741번길 13 1층)

인문학으로 '가족'을 세우다-인문학을 통해

되찾은 '가족' 그리고 '행복한 삶'의 길

김정은 / 저자

4.19(수) 10:30

행복한책방

책방거리 프로그램

출판사 및 단체와 함께하는 강연

2017년 8월~11월

글항아리

영국 건축문화 기행

송준 / 작가, 칼럼니스트

9.4(월) 19:00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65)

까다로운 대상, 지금 여기 삶과 예술

강수미 /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교수

10.20(금) 19:00

마포구립서강도서관

김영사

단위로 본 세상

김일선 / 공학박사, IT컨설턴트, 번역가

11.22(수) 19:30

김영사 2층 북카페 행복한마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

꿈교출판사

미국 문학 속에 드러난 위안부의 모습

오세웅 / 라이더대학교 영문학과 종신교수,

미국 문화 비평가

8.19(토) 15:00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로 389번길 42-19)

한국전쟁기의 피난민과 피난민 수용소

전간생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10.28(토) 14:00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넥서스

한 인문학자가 본 종교개혁

이동훈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9.4(월) 19:00
정원이 있는 국민책방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22길 64)

돌베개

어느 작가의 자본주의 읽기

추정경 / 소설가
10.27(금) 15:00
월곡꿈그림도서관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17)

어느 인문주의자의 과학 읽기

정인경 / 과학저술가
11.30(목) 10:00
광고홍채도서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교 88)

어느 인문주의자의 클래식 읽기

문학수 / 경향신문 부국장, 선임기자
11.24(금) 11:00
미스터비티고 책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73번길 8-2)

동녘출판사

Restart! 다시 시작하는 글쓰기

원재훈 / 시인, 작가

- 1강: 써도 써도 늘지 않는 글쓰기,
어떻게 할까?
8.24(목) 19:30
가톨릭청년회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2강: 마음대로 말고, 마음으로 써라!
8.31(목) 19:30
가톨릭청년회관
- 3강: 내 주변에서 글감을 찾는 방법
9.7(목) 19:30
가톨릭청년회관

또다른세상협동조합

문화를 사랑한 나라, 아일랜드

김태훈 /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
9.21(목) 19:00
청아인문아카데미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41 지하)

명필름

건축과 영화

홍성용 / 건축가
건축과 영화 1-또 다른 주연 <비긴 어게인>
9.23(토) 15:00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카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30-20)

건축과 영화 2-또 다른 주연 <너의 이름은>
10.21(토) 15:00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카페

정치와 영화

박상훈 / 작가
정치와 영화 1-<빌리 엘리어트>
~정치적이되 아름다워야 한다
11.4(토) 13:00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카페

정치와 영화 2-<내일을 위한 시간>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11.25(토) 13:00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카페

산지니

바다쓰레기, 다시 태어나다: 해운대

바다상점 이야기

하덕현 / 에코에코협동조합 대표, 바다상점
운영
8.25(금) 19:00
해운대 바다상점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예성을 통해 살펴본 임진왜란

신동명 / 한겨레신문사 기자

9.22(금) 19:00

부산문화콘텐츠포럼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40)

못 생명의 삶터 국립공원

윤주옥 / 생태환경운동 활동가

11.3(금) 19:00

부산문화콘텐츠포럼

살림출판사

서구 문화와 와인: 와인 전문가 고흥욱에게서

듣는 유럽 문화의 이해

고형욱 / 음식 평론가, 와인 평론가

8.24(목) 19:00

북카페 파오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34 신흥빌딩 3층)

작가가 들려주는 읽기 방법: 슬로 리딩,

사유의 힘을 키우다

박현숙 / 동화작가

9.16(토) 14:00

살림출판사 사옥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30)

남자가 임신하면 안 되나: 불교계의

갈릴레이 강병균 교수 초청강연회

강병균 / 포항공과대학 수학과 교수

9.21(목) 19:00

북카페 파오

도서출판 아시아

주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특강

정한아 / 소설가, 최은영 / 소설가

1강: 주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 깊이

읽기: K-픽션 작가와의 대화

9.9(토) 16:00

명동 해치홀 (서울시 중구 명동8길 27

(명동27가) M플라자 5층)

고은 / 시인

2강: 주한 외국인을 위한 고은 시 읽기

9.30(토) 16:00

명동 해치홀

안도현 / 시인,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3강: 주한 외국인을 위한 안도현 시 읽기

10.14(토) 16:00

명동 해치홀

방현석 / 소설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4강: 주한 외국인을 위한 활판인쇄역사 특강

10.21(토) 16:00

출판도시활판인쇄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45)

배리 웰시 / 동국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교수

5강: 주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독서

디베이트

11.24(금) 18:00

영등포 아트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아트북스

나오시마 건축 기행

차현호 / 건축가

9.6(수) 19:00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65)

그랜드 아트 투어

이은화 / 뮤지엄 스토리텔러

10.16(월) 19:00

마포구립서강도서관

현대철학의 예술적 사용

홍명선 / 작가

10.19(목) 19:00

마포구립서강도서관

그림으로 만나는 세계화의 순간들

송병건 / 성균관대학교 경제사 전임교수

11.1(수) 19:00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안그래픽스

WHY DESIGN, WHY BRAND

장영철 / 건축가, 와이즈건축 대표
간결함의 가치
8.24(목) 18:30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22 홍우2빌딩)

나루카와 타쿠야 / MUJIKOREA대표
무인양품의 현재와 미래
8.24(목) 20:10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

임태수 / 『날마다, 브랜드』 저자
브랜드적인 생활 의식과 태도
8.25(금) 18:30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

새로운 미래,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

내일의 세상을 디자인하는 오늘
존 타카라 / 런던 왕립예술대학 선임연구원
9.26(화) 10: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작은것이아름답다

시, 지구를 만나다

이문재 / 시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8.29(화) 19:00
녹색교육센터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13,
3층)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다

이일훈 / 건축가
9.12(화) 19:00
녹색교육센터

청아출판사

중국 학교

중국 오지 여행

조관희 / 상명대학교 교수, 한국중국소설학
회장 역임
9.7(목) 19:00
청아인문아카데미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5길 41)

중국 음식 문화

윤태옥 / 중국 여행작가, 다큐멘터리 제작자
9.14(목) 19:00
청아인문아카데미

태학사

아버지와 아들: 윤증(尹拯)이 아들 행교

(行教)에게 보낸 편지
강혜선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9.1(금) 20:00
양지원 빌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봉원로
3길)

동아시아 맹자학(孟子學)의 전환: 정약용의

『맹자요의(孟子要義)』

함영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9.22(금) 20:00
양지원 빌딩

『열하일기(熱河日記)』를 통해 보는 청나라의 문화와 외교문서

송강호 / 前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연구원
10.20(금) 20:00
양지원 빌딩

한길사

가희(歌姬)鄧麗君(鄧麗君)의 삶과 노래

최창근 / 저술가
8.10(목) 19:30
순화동천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9길 28,
덕수궁롯데캐슬 컬처센터)

만화로 삶을 그리다

박재동 / 만화가

9.5(화) 19:30

순화동천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 이야기

김지우 / 번역가

정혜윤 / CBS 라디오 프로듀서

9.12(화) 19:30

순화동천

한티재

헌법과 인문주의

김해원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0.27(금) 19:00

도서출판 한티재 세미나실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92길 15 2층)

시민에게 권력을: 지역의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나?

하승우 / 정치학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맹맹책협동조합 공동대표

11.15(수) 19:00

도서출판 한티재 세미나실

호밀밭출판사

지금 여기에서, 고전 다시 읽기

장희창 / 동의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

8.25(금) 19:00

문화매개공간 씬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077번지 수영지하철역내 수영상가 13호)

100개 한자로 읽는 중국문화

하영삼 / 경성대학교 중문과 교수,

한국한자연구소장, 대한중국어회장

10.27(금) 19:00

문화매개공간 씬

시가 있는 여행 이야기

동길산 / 시인

11.24(금) 19:00

문화매개공간 씬

효형출판

새로운 여행의 기술: 아일랜드 캠프힐,

덴마크 스반홀름 커뮤니티 여행

하정 / 『이런 여행 뭐, 어때서』 저자

10.20(금) 16:00

효형출판 1층 북카페 눈 (경기도 파주시

화동길 125-11)

여행이 달라지는 기술: 그림을 친구 삼아

떠나는 여행, 팬드로잉 클래스

하정 / 『이런 여행 뭐, 어때서』 저자

10.27(금) 16:00

효형출판 1층 북카페 눈

무궁무진한 베트남 국수의 세계

진유정 / 카피라이터

11.3(금) 16:00

효형출판 1층 북카페 눈

19세기 중반, 조선반도와 일본 열도 역사 기행

송영만 / 효형출판 대표, 『지중해 여행지도,

나를 기억하다』 저자

11.10(금) 16:00

효형출판 1층 북카페 눈

후마니타스

달리는 가차에서 본 세계

박흥수 / 철도기관사

1강: 철도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11.2(목) 19:30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2강: 시베리아 횡단 열차-잇힌 대륙을

달렸던 사람들

11.9(목) 19:30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책방과 함께하는 강연
2017년 8월~11월

라이너노트

**라이너노트 쓰는 법-자신과 타인을 위한
음악 글 쓰기**
김경진 / 음악평론가, 음악문화공간
스트라다움 부관장

1회: 라이너 노트 살펴보기
9.6(수) 20:00
음악·서점 라이너 노트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9길 4, 1층)

2회: 라이너 노트의 기본
9.13(수) 20:00
음악·서점 라이너 노트

마이북

이만큼 가까운 미국
김봉중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9.7(목) 19:30
마이북 서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41)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를
중심으로**
손호철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 상임공동의장
9.21(목) 19:30
마이북 서점

미스터버티고

**최성웅과 함께 읽는 에드몽 자베스의 시와
작품세계**
최성웅 / 프랑스어/독일어 통번역가
9.28(목) 20:00
미스터버티고 책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73번길 8-2)

**배수아와 함께 읽는 W. G. 제발트의 시와
작품세계**
배수아 / 소설가, 번역가
10.26(목) 20:00
미스터버티고 책방

**박현주와 함께 읽는 찰스 부코스키의 시와
작품세계**
박현주 / 작가, 번역가, 칼럼니스트
11.22(수) 20:00
미스터버티고 책방

우리글방

**책방에서 만나는 세상의 모든 시학:
두보(杜甫)의 시와 시대읽기-전란 너머를
꿈꾸다**
김승룡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9.26(화) 19:00
우리글방 (부산시 중구 보수동1가
보수동책방골목)

아카이브와 독립출판: 삶, 저장하기/출력하기 279
안정희 / 작가, 북큐레이터
10.21(토) 14:00
우리글방

**음악으로 만나는 시의 세계: 테너 김현식의
스토리가 있는 가곡 연주회**
김현식 / 성악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음악 전임강사
10.21(토) 17:00
우리글방

한길문고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 前 청와대 연설비서관
12.5(화) 16:30
한길문고 (전북 군산시 하나로로 38 2층)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소수자들과 만나는 법
신승철 / 심리 치료사
이윤경 / 작가
9.19(화) 16:30
회현중학교 강당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위로 426)

행복한책방

音美하는 인문학

박홍순 / 인문학자

그림으로 철학하기

9.13(수) 19:30

행복한책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741번길 13, 1층)

황윤 / 역사학자

박물관은 살아있다

10.25(수) 10:30

행복한책방

정윤수 /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시대의 음악, 삶의 풍경

11.8(수) 10:30

행복한책방

홍인희 / 인문학자

우리 산하에 깃든 인문학

11.22(수) 19:30

행복한책방

280

어린이책잔치 특별 프로그램

다 같이 놀자!

5.5(금) ~ 5.7(일)

파주출판도시일대

인문학당 서머스쿨

출판도시에서 만나는 영화장인들

류영재 / 데몰리션 실장

데몰리션 대표작 관람. 영화 특수효과

감독을 만나다

7.22(토) 13:00

명필름아트센터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30-20)

이은 / 명필름 대표

명필름 대표작 관람. 영화 제작자를 만나다

7.29(토) 13:00

명필름아트센터

임재영 / 라이트림 대표

라이트림 대표작 관람. 영화 조명감독을 만나다

8.12(토) 13:00

명필름아트센터

김석원 / 블루캡 대표

블루캡 대표작 관람. 영화 사운드 디자이너를 만나다

8.19(토) 13:00

명필름아트센터

신재호 / 메이지 대표

메이지 대표작 관람. 영화 특수분장 디자이너를 만나다

8.26(토) 13:00

명필름아트센터

선생님을 위한 글쓰기, 글쓰기 교육방법-어떻게 쓰고, 읽고, 가르칠 것인가

방현석 / 소설가

1강: 스토리텔링의 역사와 책만들기

7.22(토) 9:00

출판도시활판인쇄박물관

안도현 / 시인

2강: 안도현의 시 한 편 제대로 읽고 쓰기

7.22(토) 11:00

출판도시활판인쇄박물관

방민호 / 문학평론가

3강: 방민호의 교과서 작품 제대로 읽고

가르치기

7.24(월) 9:00

활판인쇄박물관체험학교

오정희 / 소설가

4강: 오정희의 산문 쓰기, 소설 읽기

7.24(월) 11:00

활판인쇄박물관체험학교

구지원 / 문화예술교육자

5강: 활판인쇄술을 활용한 신나는 문학수업

비법

7.24(월) 13:00

활판인쇄박물관체험학교

시, 인문정신, 타이포그래피-내가 소원하는 나라는

박수밀 / 고전인문학자, 시민행성운영위원
옛사람들의 명문장으로 생각하는 '좋은 나라'

7.25(화) 10:30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30)

함돈균 / 문학평론가, 시민행성운영위원
사물이 꿈꾸는 '너머' 세상

7.25(화) 13:30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이영광 / 시인, 고려대 미디어창작학부교수
한 문장으로 읽고 쓰는 시인의 나라

7.26(수) 10:30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박연주 / 그래픽디자이너
타이포그래피 작업(1)

7.26(수) 13:30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박연주 / 그래픽디자이너,

함돈균 / 문학평론가, 시민행성운영위원
타이포그래피 작업(2) + 오후 전체 강평

7.26(수) 13:30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지혜의숲 강연

그림책 빛그림 이야기

지원숙 / 그림책 작가

7.15(토) ~ 8.27(일), 매주 토·일요일
(토요일 14:00, 일요일 14:00, 16:00)
지혜의숲 2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컨템포러리 아트(현대미술)의 비밀:

놀이의 예술

오은정 / 순수예술작가

호기심과 질문으로 시작한 현대미술

7.15(토) 15:30

지혜의숲 2

놀이의 예술, 컨템포러리 아트 (동시대예술)

7.22(토) 15:30

지혜의숲 2

나의 컨템포러리 아트 구상해보기

7.29(토) 15:30

지혜의숲 2

북유럽 아트 가족 워크숍 TO BE FREE

안애경(Amie Ann) / 아트디렉터,

핀란드 아티스트 3인

8.5(토), 8.6(일), 10:00~16:00

지혜의숲 2

파주북소리 2017 특별 프로그램

주요 초대 작가:

김훈, 은희경, 김연수, 천명관, 정이현,

정호승, 이병률, 장강명, 박준, 백영옥, 이기주

9.15(금) ~ 9.17(일)

파주출판도시 전역

지혜의숲 심야책방-읽어밤

프로그램구성:

특별게스트 소설가 장강명과 함께하는
'심야 책 수다', 자유롭게 밤새도록 책을 읽는
'슬로우리딩', 밤의 허기를 채워 주는
'스넥코너', 다양한 체험이 결합된 '워크샵'
프로그램, 이벤트 등

9.15(금)저녁 ~ 9.16(토)아침

지혜의숲 2



284





285



출판도시문화재단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출판도시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지식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3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세계 최초의 문화산업도시인 출판도시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집약하고 기획하여 페스티벌을 비롯한 국제 출판문화교류와 연구, 강연, 심포지엄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전시, 공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T. 031-955-0050

F. 031-955-0054

www.pajubookcity.org

286 재단소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출판문화공동체인 출판도시의 중심지로 출판문화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연구와 교육, 공식성 문화행사 개최, 국제 교류 등을 위하여 2007년 완공된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이 센터는 지하 일층, 지상 오층, 연면적 7만 제곱미터로 국제적 규모의 각종 대관시설과 숙박시설, 야외무대 등을 겸비하여 한국 출판문화의 활성화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독특한 공간구성 등이 높게 평가되어 2004년 제14회 김수근건축문화상(설계자 김병윤)을 받았습니다.

승용차

서울에서 일산, 통일동산 방면으로 자유로를 타고 이동,
장월 IC에서 파주출판도시 진입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비게이션 검색어

출판도시문화재단, 지혜의숲

오시는 길

287

대중교통

서울 → 파주출판도시(은석교사거리 정류장 하차)

- 2200번 합정역 → 파주출판도시(자유로 직행)

- 200번 합정역 → 일산신도시 → 교하신도시 → 파주출판도시

일산 → 파주출판도시(은석교사거리 정류장 하차)

- 20번 원당역 → 식사동 → 덕이동 → 파주출판도시

- 200번 일산신도시 → 교하신도시 → 파주출판도시

출판도시
인문학당